



현대조선력사

교급 1

학우서방

학우서방
2011. 10. 11

현대조선력사

교금

1

1

학우서방

자 테

제 1 편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1945. 8—1950. 6)

1. 광복후 새 조선이 나아갈 길.....	4
2. 새 조선건설.....	11
1) 북조선에서 새 민주조선건설	11
2) 남조선에서 구국투쟁.....	29
3. 전 조선적인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	38
1) 미국의 민족분열책동.....	38
2) 4월남북련석회의와 단선단정반대투쟁.....	43
3) 통일정부수립	51
4. 광복후 재일동포들의 처지와 애국애족운동.....	57
1) 광복직후 재일동포들의 지향과 처지.....	57
2) 재일본조선인련맹의 결성.....	61
3) 재일동포들의 권리쟁취투쟁.....	64
4)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	67
5) 통일정부수립을 지지하는 투쟁	71

제 2 편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

1. 전쟁전야의 정세.....	74
2. 조선전쟁의 개시와 확대	79
1) 전면전쟁으로 확대.....	79
2) 조선인민군의 전략적후퇴와 새로운 반공격.....	85
3)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90
4) 미제와 남조선통치자들의 범죄행위	98
3. 전쟁시기 재일동포들의 처지와 투쟁.....	101
4.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	109
색인	113

제 1 편)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1945.8-1950.6)

1 광복후 새 조선이 나아갈 길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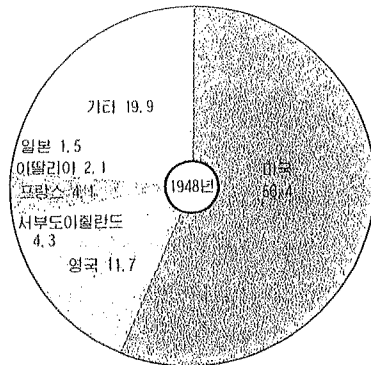
제 2 차 세계 대전의 결과 패소국가들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패망하고 戰勝國들인 영국, 프랑스도 경제, 군사적으로 심히 약화되었다.

오직 미국만이 전쟁기간 무기와 군수물자를 팔아 막대한 리운을 얻어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한편 사회주의소련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지고 그 영향아래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였다.

아시아에서는 구식민지체제가 붕괴되고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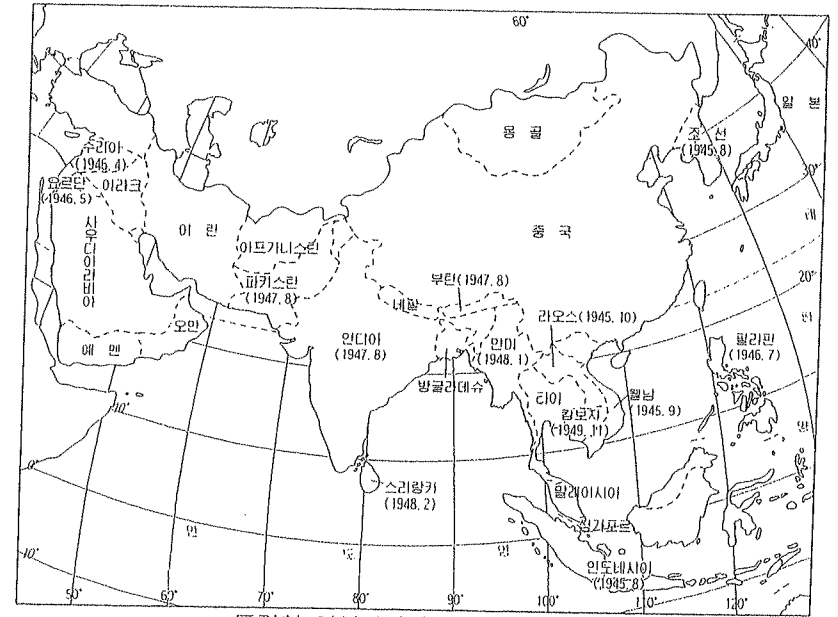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이 빨리 발전하였다.



세계 사회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6대강국》들의 생산비율(%)

세계적범위에서 민주력량이 장성하는데 불안을 느낀 미국은 오래전부터 꿈꾸어오던 세계制覇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나서게 되었다.

미국은 유럽에서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막는 한편 아시아에서는 蔣介石을 부추겨 중국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가로막으며 일



독립한 아시아나라들(1945-1950)

본과 남조선을 틀어쥐고 대륙침략의 기지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과 사회주의, 진보적세력들간의 새로운 대립, 東西冷戰이 시작되었다.

38도선의 제정과 쏘 미량군의 조선주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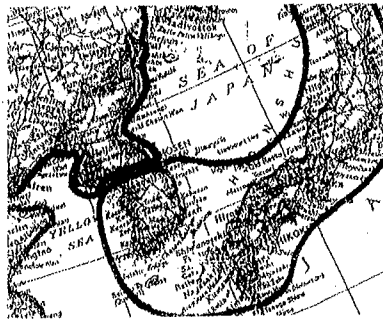
제 2 차 세계 대전시기부터 전 조선을 강점할것을 노리던 미국은 대전말기에 이르러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광복작전과 소련의 対日戰爭참가로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수 없게 되자 다른 방도를 모색하였다.

8월 10일 일본이 항복의사를 표시하자 미국은 급히 3省調整委員會를 열고 조선인민혁명군과 소련군대에 의한 전 조선장악을

*1 랑진: 직접 무력을 쓰지 않으나 적대적대립이 극도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무력을 사용하는 실제적인 전쟁인 열전에 대비하여 쓰는 말이다.

*2 3성조정위원회: 미국대통령 트루먼의 지시에 따라 열린 국무성, 육군성, 해군성의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미국의 38도선분할지도

방면군 총사령관 맥아더에게 전달하였으며 9월 2일 일본의 공식항복의 서명과 함께 세상에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반도에는 일본군대의 무장해제를 위한 임시분계선인 38도선이 그어졌으며 쏘미량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북조선주둔 쏘련군 치스차코브사령관은 성명에서 새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자신이며 쏘련군은 건국사업을 위한 모든 조건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히었다. 쏘련군은 民政을 실시하여 조선인민의 요구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남조선을 점령한 맥아더는 포고문에서 38도선 이남에서 軍政을 실시하고 미점령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



인천에 상륙하는 미군



원산에 상륙한 쏘련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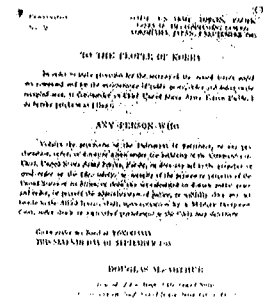
*1 민정: 민간인이 민주주의적방법으로 나라나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형식이다.

*2 군정: 점령한 나라나 지역에서 점령군기관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직접 통치하는 정치형식이다.

선인민은 점령군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군정실시에 대한 포고는 조선의 민주주의적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포고는 38도선이 조선반도와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기 위한 분계선으로 되어나감을 예고하였다.



맥아더의 포고문

조선인민의 41년간에 걸치는 악독한 일제식민지통치에서 광복된 조선인민은 드높은 건국열의를 안고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섰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인민무장대들은 8.15후에도 평양, 함흥, 해주 등 각 지역에서 발악하는 일제패잔병들을 무장해제하였다.

인민들은 각지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일제소유의 공장, 기업소들을 빼앗아 자체의 힘으로 보위관리하였으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였다.

西大門刑務所를 비롯한 여러 감옥들에서 석방된 애국자들과 지하에 숨어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해외의 독립



감옥에서 나온 애국자들

운동가들도 귀국을 서둘렀다. 려운형, 안재홍을 비롯한 애국적활동가들은 서울에서 建國準備委員會를 결성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은 매를 같이하여 전국각지에서 地方人民委員會를 조직하였다.

* 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15일 려운형, 안재홍 등 건국동맹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으며 20일간 활동하였다.

인민위원회들의 출현과 함께 건국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곳곳에 건국청년자치대가 무어졌다.

각지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일본인재산의 몰수와 반환, 치안의 유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러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였다.

현준혁, 김용범 등 공산주의자들은 평양을 비롯한 북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지방당조직을 꾸렸으며 서울에 있던 공산주의세력들은 급히 共產黨을 再建하고 활동하였다.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는 높았으며 그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는 인민의 나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크나큰 희망과 기대에 넘쳐있었다.



현준혁

인민들의 앙양된 기세에 눌리어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머리를 쳐들지 못하였으며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갔다.

광복직후에 발휘된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는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능히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자주독립국 가건설로선

광복후 정치무대에 등장한 여러 애국자, 독립운동가들은 저마다 建國路線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을 벌리었다.

려운형, 허헌, 박헌영 등은 9월 6일 《朝鮮人民共和國》(《인공》)의 창건을 선포한 후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일제와 봉건잔재세력을 쓸어버리고 부르쥬아민주주의사회를 세운다는 정강

*공산당재건: 1945년 9월 11일 서울에 있던 공산주의세력이 《경성(서울)콩크를》을 규합하여 공산당을 재건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서울중앙》이라고 불렀다.

을 발표하였다.

중국에 있던 김구를 비롯한 립시정부세력들은 《臨政法統論》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승인을 얻으려 하였다.

한편 당장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봉건사회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한결같이 념원하였으나 여러 정치세력들이 제각기 건국로선을 내세움으로써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더우기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인공》도 《립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밝힘으로써 조선인민의 건국사업은 더 복잡성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리용하여 김성수, 송진우를 비롯한 반동세력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에 큰 기대를 걸면서 9월 16일 《韓國民主黨》을 결성하고 민주주의세력들의 건국로선을 반대해나섰다.

조성된 정세는 하루빨리 조선인민의 총의를 반영한 건국로선을 제시하여 전체 조선인민을 그 실현으로 불러일으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애국적인사들과 인민들은 평양과 서울 등지에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못하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하루빨리 조국에 개선하시여 조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실것을 념원하였다.

주석님께서서는 1945년 8월 2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새 민주조선건설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9월 원산을 거쳐 평양에 개선하신 이후 국내외정세를 분석하시

*《립정법통론》: 상해립시정부만이 조선을 대표하는 정통정부라는 주장이다.



려운형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두번째 줄 가운데 앉아계시는분)

고 그를 구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서는 광복된 조선에서는 ^{반서방반진}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을 수행하고 進歩的民主主義에 기초한 ^{부강}富強한 自主獨立國家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뚜렷히 밝히시였다.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는 참다운 건국로선이 밝혀짐으로써 조선인민은 새 사회건설을 위한 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서울에서 결성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

경애하는 주석님을 모시기 위하여 1945년 10월 서울에서 결성된 조직이다.

홍명희, 허헌, 최원택, 최일천, 백남준이 위원으로 된 이 조직에는 2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 진보적민주주의 : 쏘련식도 미국식도 아닌 조선식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것이다.

2 새 조선건설

1) 북조선에서 새 민주조선건설

북조선공산당 창건 :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새 조선건설의력사적과업을 수행하자면 대중을 옳게 이끌어 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조직인 당을 하루빨리 창건해야 하였다.

그러나 광복후 국내공산주의세력은 주도권장악을 위한 파벌싸움을 계속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와 국내공산주의운동의 복잡한 실태를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새형의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다그치시였다.

주석님께서서는 김책, 김경석, 김일 등 수많은 항일투사들을 전국각지에 보내시여 전국준비와 함께 지방당조직들을 잘 꾸리며 대중적지반을 마련하도록 하시였다.

당창건방침

- ①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혁명가들을 망라하여 당을 창건한다.
- ②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인 통일적당을 당장 창건할수 없는 조건에서 북조선에 먼저 당 중앙지도기관을 내오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한다.



김책



김경석



김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정사와 당장건을 선포한 회의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던 김용범, 박정애 등 애국적인사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견해를 들어보시면서 하루빨리 당을 창건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1945년 10월 5일 평양에서는 당창건을 위한 예비회의가 열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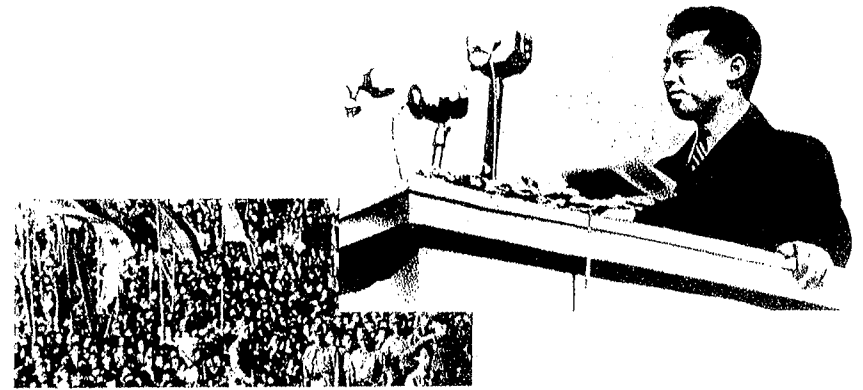
회의에서는 오기섭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저들의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서울중앙》을 고집하였으나 당장 북과 남의 통일적당을 창건할수 없는 조건에서 북조선에 강력한 당중앙지도 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가 합의되였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10월 10일부터 13일에 걸쳐 평양에서 열린 당창립대회에서 北朝鮮共產黨中央組織委員會가 창설되였다.

북조선공산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
경애하는 주석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1945년 10월 14일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평양공설운동장(오늘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리였다.

대회장은 평양시는 물론 북과 남의 각지에서 모여온 수많은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1945.10.14)

백戰老將이 나을줄로만 알았던 군중들은 30대 청년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연단에 나오시자 경탄의 환호성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인민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하시고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시였다.

주석님께서는 연설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시였다.

주석님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첫 개선연설을 하신 후 고향 만경대를 방문하시여 20년만에 가족, 친척, 마을사람들과의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평양시환영군중대회의 소식에 접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애국애족과 민주주의기치 밑에 굳게 뭉쳐 새 조선건설에 적극 떨쳐나섰다.



20년만에 만경대교향집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북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민주주의정당,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는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갔다.

민주주의정당과 대중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은 반동분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는 투쟁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자들은 여러 갈래의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여 대중을 분열시키고 하였으며 1945년 11월에는 일부 작성되지 못한 학생들을 부추겨 공산당을 반대하는 《신의주학생사건》까지 일으켰다.

주석님께서서는 사태를 직접 수습하시고 대중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북조선에서는 1945년 말부터 1946년초까지 労働組合總連盟, 農民組合連盟, 民主青年同盟, 民主女性同盟을 비롯한

15개의 대중단체들이 조직되었으며 여기에 광범한 대중이 망라되었다.

이와 함께 朝鮮新民黨(1946.2.16), 天道教靑友黨(1946.2.8), 朝鮮民主黨(1945.11.3)이 조직되고 북조선공산당과의 련계가 강화됨으로써 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運動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정권건설의 대중적지반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

광복후 조선인민은 일제식민지잔재와 봉건적잔재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는 진정한 인민의政權을 세울것을 한결같이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토대를 닦기 위하여 먼저 북조선에 립시적인 중앙主權機關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시었다.

북조선에서 중앙주권기관을 세우는 사업은 지방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비강화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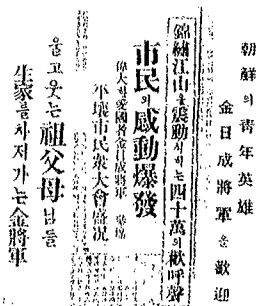
인민들의 높은 건국열의에 의하여 1945년 11월말까지 6개 도안의 모든 시, 군, 면, 리들에서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지방인민위원회들은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정권기관안에서 민족반역자들과 반동분자들을 내쫓는 사업도 벌렸다.

11월 19일에는 인민경제의 각 부문을 지도하며 각 도들의 경제

《신의주학생사건》

공산당과 인민위원회에 들어간 일부 그릇된자들이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였다.

반동분자들은 이러한 틈을 타서 정치적작성이 부족한 학생들을 부추겨 소동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조국개천소식을 전한 신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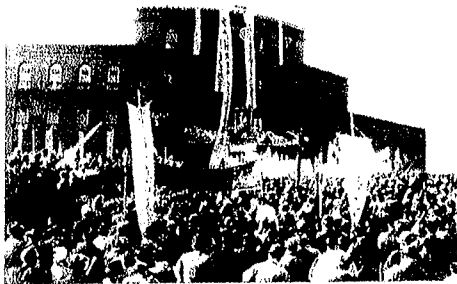
- *1 조선신민당 : 지식인들과 소자산계급의 출신들로 구성된 당이다.
- *2 천도교靑우당 : 천도교인들의 정당으로서 다수가 농민들로 구성된 당이다.
- *3 조선민주당 : 소자산계급, 기업가, 상인, 부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리스도교인들도 많이 망라된 당이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사무실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적련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北朝鮮行政10局이 조직되었다.

중앙주권기관을 내올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데 기초하여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발기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1946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2월 8일에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통일전선에 기초한 정권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수립되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 행정10국 : 산업(産業), 교통(交通), 통신(通信), 농림(農林), 상업(商業), 재정(財政), 교육(教育), 보건(保健), 사법(司法), 보안(保安)국으로 조직된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이다.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쥔 나라의 주인으로 되었으며 새 민주조선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성격

로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애국적민주력량의 리익을 대표하는 인민정권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시명

- ①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 예속자본가들을 청산
- ② 인민들에게 민주주의 실시
- ③ 북조선에서 제반 민주개혁의 수행
- ④ 북조선에서 민주기지 창설

민주개혁의 실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정권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을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반 民主改革를 적극 추진하였다.

북조선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은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는 사회전반을 민주화하기 위한 일대 변혁이었다.

일제와 지주들로부터 2중, 3중의 착취를 받아온 농민들은 광복직후에도 계속 지주들의 착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인구의 80%를 차지하면서도 땅을 못가진 탓으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온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았으면 하는것이 평생소원이었다.

세기적념원인 토지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농민들을 봉건적인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방할수 없었고 농업생산을 늘일수 없었으며

민족경제의 토대도 마련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土地改革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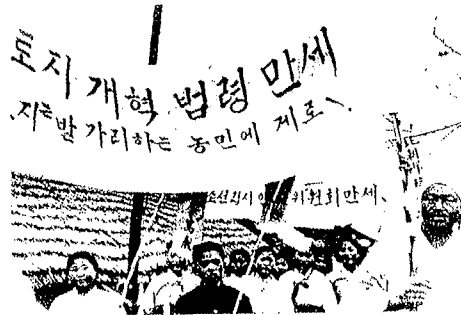
토지개혁의 성과적추진을 위하여 먼저 농민들을

지주 4.6		100만여호(북조선)	
계급구성	지작농	소작 겸 지작농	소작농
	20.4	31.6	43.4
토지소유정형	지주소유지		작작농 및 기타
	63		37

광복직전 계급구성과 토지소유정형(%)



3.7제투쟁과 토지정원운동을 벌린데 대한 신문자료



토지개혁을 경축하는 농민들

주인으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1945년 가을과 겨울에 걸쳐 3.7제투쟁이 벌어졌으며 이어 土地請願運動이 진행되었다.

토지개혁을 밀고나갈수 있는 역량이 마련됨에 따라 토지개혁법령을 완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토지개혁법령의 기본내용

- ① 일제의 소유토지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한다.
- ② 5정보이상의 토지를 가진 지주의 토지와 계속 소작주고있는 토지는 무상으로 몰수한다.
- ③ 몰수한 땅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개인소유로 한다.
- ④ 분여된 토지의 매매와 지당, 일제 소작제도를 금지한다.
- ⑤ 몰수한 산림, 관개시설, 과수원 및 경작하기 불리한 토지는 국유화한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1946년 2월 평안남도 대동군 시족면의 한 마을을 찾으신데 이어 한달이상이나 여러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촌의 실태와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토지개혁의 원칙과 방도들을 확정하시였다.

림시인민위원회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1946년 3월 5일 《토지는 발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 土地改革法令을 발포하였다.

농민들은 토지개혁법령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떨쳐나섰다.

악질지주들과 반동세력들이 1946년 3.1운동기념행사때에 주식단에 수류탄을 던지는 등 테러와 파괴행위를 감행하였으나 토지개혁은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완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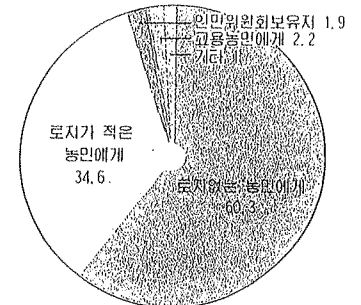
토지개혁의 결과 100만여정보의 토지가 72만여호의 貧雇農들에게 無償으로 분배되고 농민들은 땅의 주인, 농촌의 주인으로 되었다.

토지개혁에 뒤이어 重要産業國有化法令(1946.8.10)을 발포하여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중요산업부문을 국유화하였다.

중요산업이 국유화됨으로써 북조선 전체 산업의 90%이상에 달하는 1,034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되었다.

동시에 민족자본가들의 기업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경제개혁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勞働法令(1946.6.24)과 男女平等權法令(1946.7.30)이



토지분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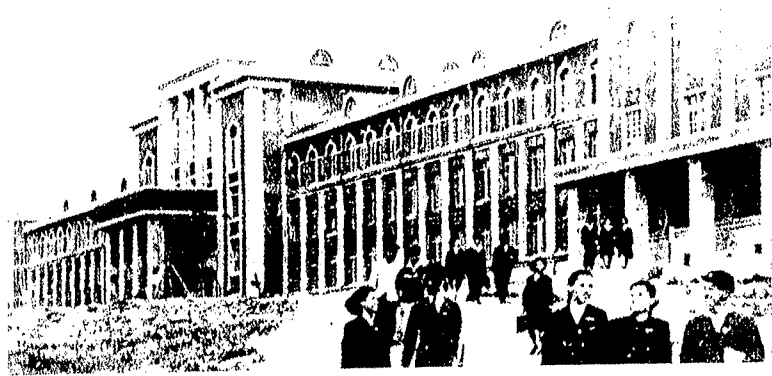


노동법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



남녀평등권법령을 지지하는 여성들

*3.7제투쟁: 토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을 그대로 두면서 수확의 30%만 지주에게 바치고 70%는 소작인이 가질것을 요구하는 경제투쟁의 한 형태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발포되었다.

교육,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여러가지 시책들이 실시되었다.

특히 주석님의 민족간부양성에 관한 원대한 구상에 따라 1946년 10월에 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 창설된데 이어 만경대혁명학원이 세워졌으며 1947년 9월까지만 하여도 전국각지에 1,150개의 학교건물이 새로 건설되었다.

이와 함께 각지에서 여러 형태의 학교들이 운영되었으며, 1947년 8월이후 리계산농민의 모범이 일반화되는 속에서 전인민적인 문맹퇴치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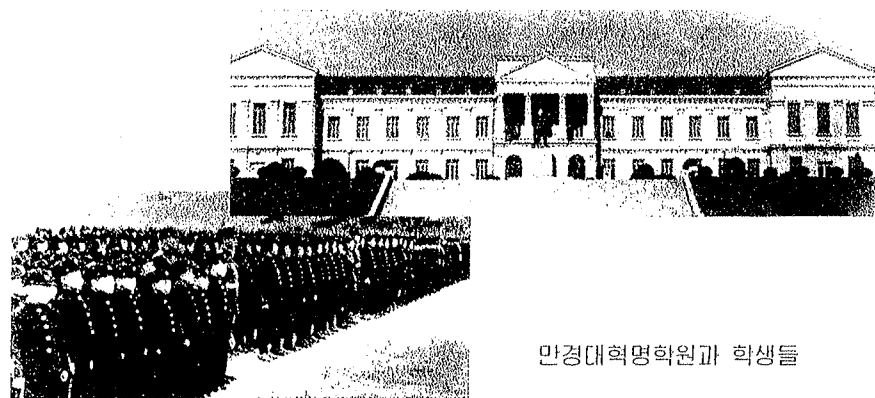
민주주의적교육제도가 마련되고 문맹이 퇴치됨으로써 전반적문



리계선

문맹퇴치운동

광복직후 북조선에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의 후과로 하여 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230여만명이나 있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1945년 11월 문맹퇴치운동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하여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문화향상은 문맹퇴치로부터!》라는 구호밑에 이 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1949년 3월에 우리 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문맹자가 없는 나라로 되었다.



만경대혁명학원과 학생들

화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새로운 민족문화와 예술이 창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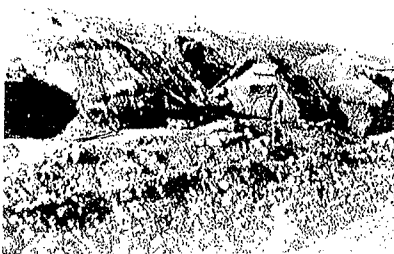
제반 민주개혁의 실시로 북조선에서는 사회의 면모가 일신되었으며 인민이 주인된 새 사회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보통강개수공사

보통강은 지난날 물질을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둔탓으로 해마다 장마때가 오면 강물이 넘쳐나 그 주변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들뜨었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평양성안에 발붙일 곳이 없는 가난한 도시민들과 빈농민들은 《土城廊》으로 알려진 이 강변에 모여들어 움막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45년 12월 인민들을 자연의 재난에서 해방하기 위한 자연개조의 첫 사업으로서 普通江改修工事



토성랑의 움막집

토성랑

평양에는 옛날 고구려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보통강 기슭을 따라가면서 흙으로 쌓아올린 토성이 있었다. 일제의 조선강점후 여기에 작은 움막들이 생겨나 하나의 큰 빈민촌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토성랑이라고 하였다.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1946.5.21)

를 발기하시였다.

주석님께서서는 일군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보아주시면서 인민들의 힘을 대담하게 믿고 공사를 3년이 아니라 70일동안에 끝낼 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1946년 5월 21일 개수공사착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서는 격려사를 하신 다음 친히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에 떨쳐나선 인민들

공사장에는 매일 수천수만의 평양시민들과 청년학생들, 지원자들이 달려나왔으며 서로 도우면서 결사전을 벌리였다.

주석님의 뜻을 받들어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께서도 매일과 같이 아드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이른새벽부터 공사장에 나오시여 건설자들의 일손을 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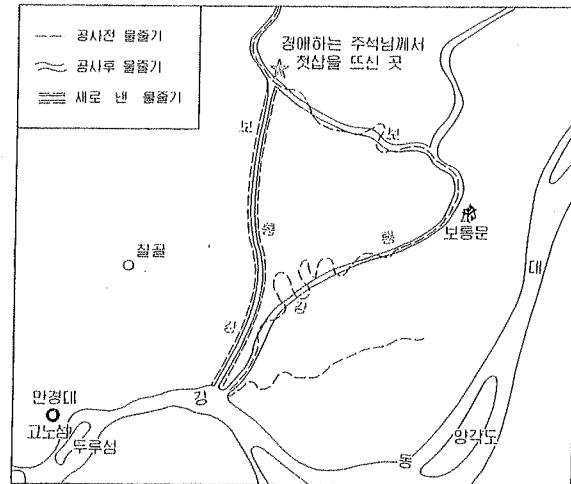
시였다.

이 소식은 곧 공사장에 널리 알려져 건설자들을 더욱 고무하였다.

그리하여 일제가 10년동안이나 끌편서도 해내지 못하였던 방대한 공사를 그해 7월 15일까지 불과 5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자연개조사업은 제반 민주개혁으로 양양된 인민들의 건국열의에 의하여 그 후 임록강護岸工事를 비롯한 대중적인 건설투쟁으로 번져가면서 전국각지에 확대되였다.

보통강개수공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똑똑히 알게 되었으며 하나로 굳게 단결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보통강개수공사 락도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제반 민주개혁을 통하여 인민들의 생활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나 오랜 기간에 걸친 일제식민지통치의 후파로 우리 인민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식민지적, 봉건적사상잔재와 악습은 새 사회,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을 가로막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이로부터 1946년 11월 建国思想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 대한 신문자료

總動員運動을 받기하시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온
 갖 밝은 사상잔재와 생활습
 성을 없애고 새 민주조선의
 일군다운 정신과 풍모, 도덕
 을 키우며 민족적기풍을 창
 조하기 위한 대중적사상개조
 운동이였다.

이 운동은 실천투쟁과 결부되어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되였다.
 로동계 급속에서는 김희일을 비롯한 정주철도기관구로동자들이
 창조한 모범이 일반화되면서 전군중적인 대중적增産競爭運動으로
 발전하였다. 이 운동의 불길속에서 1947년 1월현재 황해제철소
 를 비롯한 822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되어 조업을 하였다.

농민들은 농업생산반과 농업증산돌격대를 뚫고 식량증산, 식량
 절약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농민들속에서 벌어진 증산운동은 황해도 재령군의 김제원농민
 이 나라에 애국미 30가마니를 바친것을 계기로 보다 높은 형태의
 대중적운동인 愛國米獻納運動으로 발전하였다.

정주철도기관구로동자들이
 창조한 모범

1946년 12월 정주철도기
 관구로동자들은 돌격대를
 뚫고 안주(평안남도 안주시)
 탄광에 가서 하루 30~60 t
 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적탄
 을 300~380 t 까지 캐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것은 로동자들속에서
 벌어진 첫 애국운동이였다.

애국적인 기업가, 상인들도 현금
 헌납 등 여러가지 애국헌납운동을
 적극 벌리였다.



김희일



김제원

1948년

공업상품값
 51% 저하

1949년

쌀값 38.7% 저하
 생활필수품값 10.2% 저하

1950년 3월

기본임금
 138% 상승

인민생활의 안정향상(1947년과 대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 인민들속에서는
 민족자주의식과 애국적열의가 높이 발휘되게 되었으며 모두가 주
 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을 가지고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차
 게 떨쳐나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으며 인
 민생활은 날로 안정향상되어갔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북조선공산
 당과 인민주권만이 자기들에게 민주주의
 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며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는것
 을 깊이 확신하고 당과 정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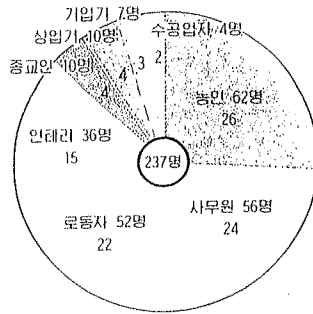
이러한 환경속에서 북조선에서는 1946년 7월 600여만명에 달
 하는 각계각층 대중을 망라한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이 결

성되었으며 8월에는 북조선공산
 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당하여
 로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
 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으로서
 北朝鮮労働黨이 창립되었다.

또한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조직적연계가 강화되고 광범한
 군중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어
 갔다.



북조선로동당창립에 대한 신문자료



북조선인민회의의 대의원구성(%)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성격
우리 나라에 세워진 첫 사회주의정권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임무
전국적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면서 북조선에서 점차 사회주의혁명단계의 과업을 수행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당과 인민정권의 정치적지반이 확대강화된데 기초하여 1946년 9월 민주선거를 통하여 임시인민위원회를 법적으로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11월 3일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민주선거에는 반동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총 유권자의 99.6%가 참가하였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대표들이 代議員으로 선출됨으로써 선거는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그리하여 1947년 2월에 열린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회에서 최고주권기관인 北朝鮮人民會議가 창설되였다.

2월 22일에는 北朝鮮人民委員會가 조직되고 경애하는 주석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제반 민주개혁의 결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자립적민족경제의 징표

- ① 자체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제
- ②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 ③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경제
- ④ 필요한 모든것을 기본상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경제

마련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自立的民族經濟建設路線에 따라 인민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갔다.



농민들과 함께 모를 쑤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주석님께서서는 황해제철소와 미림벌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 나가시여 노동자, 농민들을 고무하시고 그들을 1947년도 人民經濟計畫수행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전체 인민들은 높은 애국적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하여 첫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서는 광복직후 안길, 강건, 류경수 등 수많은 항일투사들을 ^{정규무력} 正規武力건설부문에 파견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기적인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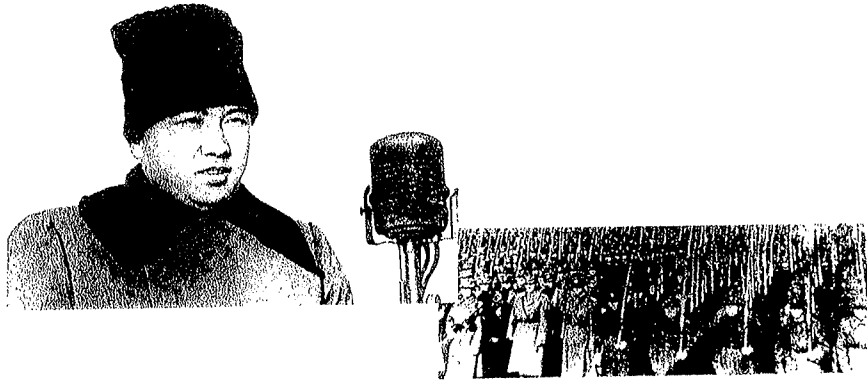
안길



강건

항일투사들은 각지에 조직된 자위대들로 새로 保安隊를 조직하는 한편 노동자, 농민출신의 군사정치간부들을 많이 키워내는 데 큰 힘을 넣었다.

1945년 11월 첫 군사정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1948.2.8)

치학교인 平壤學院이 창설된데 이어 1946년 7월에 中央保安幹部學校가 세워졌으며 곳곳에 保安幹部訓練所들이 설치됨으로써 여러 병종의 군사지휘관들이 자라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육, 해, 공군부대를 창설하는 준비가 추진되고 짧은 기간에 평양시 평천리병기공장을 비롯한 자체의 군수산업기지들이 꾸러졌다.

그리하여 1948년 2월초 북조선인민위원회안에 民族保衛局이 나오게 되었으며 2월 8일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인 朝鮮人民軍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이날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閱兵式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열병대오를 사열하신 다음 력사적인 연설에서 조선인민군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군대이며 항일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조직된 참다운 인민의 군대라고 가르치시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자주독립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조국과 민족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게 되었다.

2) 남조선에서 구국투쟁

애국적민주
력량의 장성

광복후 남조선에서도 애국적민주력량이 빨리 자라났다.

8.15직후부터 조직되기 시작한 지방인민위원회는 1945년 10월말에 이르러 7개 도, 12개 시, 131개 군들에 결성되었다.

로동계급을 선두로 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각지에서 조직을 결성하고 새 사회건설의 주인으로서 활동하였다.

로동자들은 로동조합을 조직하고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공장, 기업소들을 접수하여 자체의 힘으로 관리운영하였다.

농민들은 소작인조합, 농민조합을 조직하고 일본인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인들에게 분배하거나 3.7제를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었다.

청년학생들은 학도대, 보안대를 무어 학원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데 앞장섰다.

분산적으로 조직운영된 여러 조직들은 계급계층별 대중단체로 통합되어 갔다.

1945년 11월 50만의 노동자를 망라한 朝鮮労働組合全國評議會(전평)가 결성된데 이어 全國農民組合總連盟(전농)(1945.12), 全



조선로동조합전국평의회 결성대회장



전국농민조합총련맹 결성대회장

- 조선인민당(1945.11)
당수 려운형
- 남조선신민당(1946.3)
당수 백남운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소자산 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 당이며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하는 중간파세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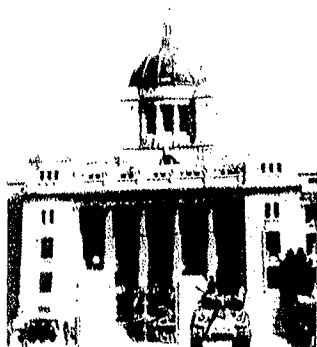


백남운

민전은 남조선의 29개 정당과 대중단체들을 망라한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조직이었다.

애국적민주력량이 장성강화됨으로써 남조선에서도 조선사람 자체의 힘으로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갔다.

미군정의 실시



《미군정청》

1945년 9월 8일 하지를 사령관으로 하는 米軍第24軍團이 인천에 상륙하였다.

미군은 《조선총독부》에서 통치권을 넘겨받은 후 남조선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인민들을 《敵國人》처럼 대하였다.

이것은 진짜 전패국인 일본에서조차 실시하지 못한것으로써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유린행위였다.

9월 11일 미국은 서울에 《米軍政庁》을 설치하고 군정장관으로 아놀드를 임명하였으며 어제날의 《총독부》건물

国青年団体總同盟(1946.4), 朝鮮婦女總同盟(1945.12), 朝鮮文化団体總同盟(1946.2)이 조직되었다.

로동자, 농민들의 열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조선공산당, 朝鮮人民黨, 南朝鮮新民黨 등의 민주주의정당들도 조직되었다.

진보적인 민주인사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워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1946년 2월 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민전)을 결성하였다.

민전은 남조선의 29개 정당과 대중단체들을

에 日章旗대신에 星条旗를 띄웠다.

미국은 일제시기의 《총독부》기구를 그대로 두고 일본인관리들을 리용하려다가 조선인민의 강한 항의에 부딪치자 일본인대신에 조선인을 등용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미군정청》의 고문으로 송진우, 김성수 등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 친미파들을 앉히었으며 경찰기구에는 일제의 주구노릇을 하던 조선인경찰의 80%를 그대로 두고 그 두목으로 조병옥을 내세웠다.

한편 미국은 자기 나라에 있던 리승만을 데려다가 《獨立促成中央協議會》를 결성하게 하였으며 친미파, 반공분자들을 규합해나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11월말에 김구, 김규식 등 임시정부인사들이 남조선에 도착하자 그들도 저들의 앞잡이로 끌어당기었다.

그러하여 미군정의 두리에는 지난 시기 친일파와 친미파, 반공분자들이 집결되게 되었다.

미국은 또한 민주력량의 전국활동을 엄격히 통제탄압하고 1945년 10월 지방인민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을 강제



남조선에 들어간 리승만

아놀드의 발언

《인민위원회는 유치한 아이들의 놀음이다.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하나의 정부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맥아더원수의 포고와 하지중장의 일반명령...에 기초하여 창설된(군) 정부이다.》(1945.10.10)



남조선에 간 상해임시정부 성원들



파괴된 서울시인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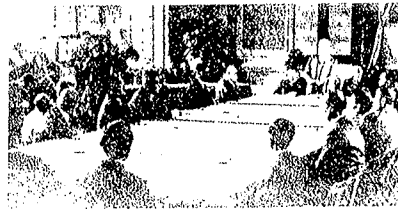
로 해산시켰다.

그리고 11월까지 인민위원회가 관리운영하던 모든 군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친일, 친미, 민족반역자들을 관리로 등용하였다.

1946년 2월에는 친일, 친미, 반공분자들을 규합하여 《民主議院》을 조작하고 조선에 친미정권을 세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갔다. 광복후 남조선은 일제를 대신한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로 전락되기 시작하였으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또다시 활개를 치게 되었다.

남조선《민주의원》

1946년 2월 14일 미군정의 ^{국무}諮問 기관으로서 조직되었다.
의장 리승만, 부의장 김규식, 총리 김구 등 38명으로 구성된 극우익세력의 연합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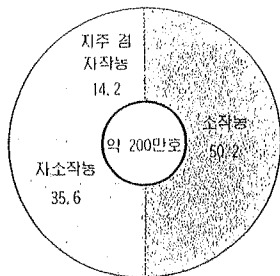
《민주의원》

미군정에 의한 남 조선사회의 《개혁》

남조선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식민지잔재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북조선과 같이 사회경제의 모든 분야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여야 하였다.

특히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민으로 구성된 남조선에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것은 더욱더 절실한 요구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1945년 9월 《군정법령》 제 2호 《^{식민}敵産에 관한



광복직후 남조선농촌에서의
계급구성(%)

件》을 발포하여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공장, 광산, 기업소들을 《적산》이라는 명목아래 모조리 몰수하였다.

12월에는 《^{몰수}敵産沒收法令》을 발포하여 공장, 광산, 기업소 등 《적산》을 불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적산》이 불하되는 과정에 일제시기

의 배판자본가, 지주, 친일파들이 또다시 남조선의 재산을 독점하게 되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계속 자본가의 밑에서 착취당하는 고용노동자로 남아있게 되었다.

한편 미군정은 몰수한 토지를 《^{신한공사}新韓公司》가 차지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일본인지주의 토지를 모두 미군정에 넘기는것으로서 인민들의 큰 불만을 자

아냈다. 남조선농민들은 북조선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의 영향으로 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한층 높이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저들의 앞잡이인 《한국민주당》과 리승만세력들이 토지개혁을 한사코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리하여 광복후에도 지주들은 더욱 부유해졌으며 반대로 농민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이와 함께 교육을 미국식으로 개편하고 남조선에서 미국의 신식민주의정책을 수행하는 친미세력을 양성하려고 하였다.

미군정은 《조선총독부》의 ^{학무국}學務局을 文教部로 개편하고 《国大案》



《신한공사》

《신한공사》

1946년 2월 미군정이 만든 토지관리회사이다.
일제시기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개편한 회사이다.

《국대안》

1946년 8월 22일 《군정법령》 제102호로 공포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다. 《국가의 전 학제를 대표할만 한 거대한 종합대학을 신설한다.》는 미명아래 경성대학교와 서울시안의 여러 전문학교들을 통합하여 서울대학교를 세우고 그 실권을 미국인총장과 《군정장관》이 틀어쥐도록 한 조치이다.



서울대학교

을 발표한데 이어 1946년 8월에 서울대학교를 세웠다.

서울대학교는 《미군정청》의 완전한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미국의 식민지교육을 반대하고 새 조선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과 진리를 탐구하려는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교수와 학

생들은 대학에서 무리로 쫓겨났다.

미국은 남조선에 미국식군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1945년 11월에 《미군정청》안에 《国防司令部》를 설치하고 사령관으로 미군대좌를 임명하였다. 12월에는 《軍事英語學校》를 설치한데 이어 그를 《国防警備士官學校》(후에 《陸軍士官學校》)로 개편하고 채병덕, 정일권, 장도영, 박정희 등 일본군과 《만주군》에 있던 하급장교들을 골간으로 군대창설을 다그쳤다.

1946년 1월에는 《国防警備隊》(육군)를 조직한데 이어 《朝鮮海岸警備隊》(1946.6), 《空軍》(1949.10)을 조직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에 기초하여 미국은 1948년 9월 남조선에서 《國軍》을 창설하고 저들의 군사전략을 앞장서 수행하는 돌격대로 꾸려나갔다.

이렇듯 남조선은 광복후에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일제식민지시기의 통치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국의 식민지로 개편되어갔다.

10월인민항쟁

1945년말부터 남조선에서는 식량위기가 들이닥쳐 쌀값과 모든 물건값이 엄청나게 뛰어들었으며 반대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졌다.

미군정은 식량위기를 강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46년 1월 《米穀收集令》을 발표하고 추진하였으나 당면한 식량문제를 풀수

종류 \ 년 대	1946. 2	1947. 2
쌀	1,348	10,146
보리	810	5,000
밀	1,390	6,785
조	1,410	7,310
콩	1,060	7,805

농산물가격의 상승(단위 : 원/석)

《미곡수집령》

생산비의 7분의 1도 못되는 가격으로 농민들의 농산물을 강제로 수집하는 조치로서 일제시대의 강제공출제도를 되살린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없었다.

식량위기를 비롯한 경제적혼란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민생고속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한편 민주력량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은 1946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로골화되었다.

1946년 2월 《政黨登錄法》을 공포하고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의 활동을 탄압해온 미군정은 5월 《精版社偽造紙幣事件》을 날조하여 공산당에 대한 일대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정당등록법》

1946. 2. 23 《군정법령》 제55호로 발표
정치활동에 참가하는 3명 이상의 단체는 미군정에 등록하여야 하며 단체의 활동이 미군정의 정책에 어긋날 경우 그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법령에 의하여 82가지 행위가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정판사위조지폐사건》

1946년 5월 미군정이 《공산당이 정판사(공산당기관지 인쇄소)에서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구실밑에 공산당본부를 습격하고 정판사를 폐쇄하였으며 기관지 《해방일보》를 폐간시킨 사건이다.
이것은 미군정이 남조선에서의 경제적혼란에 대한 책임을 공산당에 넘겨쫓으며 공산당을 비법화하려는 목적밑에 날조한 모략사건이다.



《정판시위조지폐사건》으로
제모된 공산당간부

미군정은 경찰과 함께 《民族青年團》, 《西北青年團》을 내몰아 온갖 폭력적 방법으로 민주력량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였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광복후에도 인민탄압에 앞장서 날뛰게 되자 남조선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더욱 커져 1946년 가을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대중적인 투쟁으로 확대발전하였다.

9월 23일 4만여명의 부산지구 철도로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출판, 채신, 전기, 해운 등 각 산업부문 노동자들이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갔다.

9월총파업은 시민들은 물론 학생들까지 합세하여 110여만명의 대중적시위로 확대되었다.

그들은 식량보장과 임금인상, 노동조건개선 등의 생활적인 요



9월총파업에 나선 인민들

*《민족청년단》(1946.10), 《서북청년단》(1946. 11) :

친일파, 민족반역자, 특히 북조선에서 넘어간 지주출신의 반공청년들로 꾸려진 깡패집단이다. 리승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그를 받드는 중요한 정치적지반으로 되었다.

구로부터 점차 북조선과 같은 민주주의적로동법의 실시와 정치범의 석방, 반동적테로의 중지와 같은 정치적인 요구를 내걸면서 투쟁하였다.

당황한 미군정은 경찰과 테로청년단을 동원하여 총파업에 참가한 로동자와 시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탄압은 인민들의 더 큰 반항을 불러일으켜 총파업은 10월에 들어가 전인민적인 救國鬭爭으로 확대되었다.

10월 1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식량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대렬에 경찰이 발포하여 여성로동자 한명이 희생되었다.

분노한 시위군중들은 《쌀공출을 폐지하라!》,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정권은 인민위원회에로!》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경찰서와 관청, 우편국 등 통치기관을 습격하였다.

10월人民抗爭은 두달동안에 대구,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73개의 시, 군들에서 벌어졌으며 230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참가하는 전인민적인 抗爭으로 발전하였다.

심각한 위기에 부닥친 미군정은 미군과 남조선의 경찰, 국방경비대, 테로청년단 등 탄압기구들을 총동원하여 진압작전을 벌렸다.

그 과정에 무려 1,500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이 학살되고 2만 5,0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만 5,000여명이 검거투옥되었다.

공산당의 지도적자리에 앉아있던 박헌영은 로동자, 농민들의 혁명적열의를 옹계 조직화하지 못하고 당조직과 대중단체들을 적들앞에 로출시킴으로써 대오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인민항쟁에 대한 탄압으로 파괴된 력량을 수습정비하며 북조선의 합당사업에 발을 맞추어 민주력량은 1946년 11월에 공산당과 인민당, 신민당을 합당하여 南朝鮮労働黨을 결성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민주력량은 엄청난 희생속에서도 또다시 대오를 편성하고 새로운 투쟁의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3 전 조선적인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

1) 미국의 민족분열책동

모스크바 3상회의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소, 미, 영 3国外相會議가 열리었다.

회의에서는 광복된 조선을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부흥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 결정은 조선인민의 민족적의사에 기본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서 북남조선의 많은 애국적민주력량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 결정을 《信託統治》안이라고 외곡선전하면서 자주독립을 갈망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속이고 회의결정을 반대하는 《反託運動(信託統治反對運動)》을 일으키게 하였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기본내용

- ① 조선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운다.
- ② 소, 미, 영 3국 사령부대표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정부수립을 협력한다.
- ③ 조선임시정부와 소, 미, 영, 중 4개국이 구체적인 방책을 작성하여 5년이내의 후견제를 실시한다.
- ④ 2주일내로 소, 미, 영 3국 대표들로 회의를 조직한다.

미국의 부추김밑에 이승만과 《한민당》의 반동세력은 《반탁운동》을 요란하게 벌리는 한편 《반탁운동》에 앞장서는 자기들만이 《애국자》인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의 실현은 처음부터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복잡하게 조성된 정세를 분석하시고 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의 본

질은 조선에 민주주의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이며 4개 국에 의한 後見制는 조선인민의 념원과 다소 배치되는 점도 없지 않



3상회의결정지지시위



《반탁운동》시위

지만 우리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을 잘하면 5년이내의 후견기간을 단축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미국이 《반탁운동》을 일으키게 한 목적은 회의결정을 파탄시켜 조선이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부흥발전하는 길을 막고 조선에 친미정권을 세우자는데 있다고 밝히심으로써 미국이 조종하는 여론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였다.

3상회의결정의 본질이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자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는 결정을 지지하고 쏘미공동위원회를 빨리 열어달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졌다.

1946년 3월부터 쏘미共同委員會 제 1차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미국의 계획적인 책동으로 파탄되고말았다.

그후 미국은 이승만을 시켜 單獨政府樹立計畫(《井邑發言》)을 내놓게 하는 한편 민주력량을 자기편에 끌어당기기 위하여 1946년 7월



쏘미공동위원회

*《신탁통치》: 강대국, 선진국이 《자치할 능력이 없는》 약소국, 발전도상국에 《자치 또는 독립》할수 있도록 《방조》해주는 정치방식이다.

좌우합작위원회를 내왔다.

좌우합작위원회에는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나 그들의 의도는 각양각색이었다.

려운형, 김규식 등은 단독정부수립을 기어이 막고 통일적인 민주주의 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전 민족의 의지를 한데 모아야 한다는 절박성으로부터 이 기회를 리용하여 좌우세력들을 합작시켜보려고 모색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부 우익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합작원칙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핵심인사들이 위원회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좌우合作運動은 좌절되고 말았다.

미국은 좌우합작위원회에 남은 일부 민주력량단을 자기편에 끌어당기고 거기에 리승만과 《한민당》을 결합시켜 그들에게 《民意》의 보자기를 씌울 목적으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946년 10월에 진행된 《過度立法議院》선거에는 일제시기와 같이 일부 納稅者와 지주들만이 참가하고 인민들은 선거가 진행된다는것조차 모르는 상황에 있었다.

12월 김규식을 의장으로 하는 《과도립법의원》이 구성되는데 이어



좌우합작위원회 성원들

1947년 2월 《過度政府》가 선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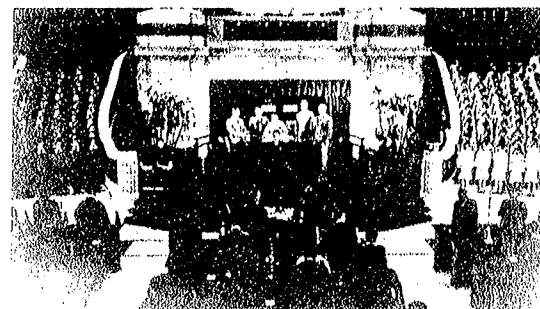
《과도정부》는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조선인민의 간판으로 가리우고 그에 《법적승인》을 주자는 미국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산물이었다.



《정음발언》신문자료

당 파	인원수(%)
좌우합작파	31명(34)
한민당	23명(26)
독립촉성국민회	16명(18)
한국독립당	10명(11)
무소속우파	10명(11)
계	90명(100)

《과도립법의원》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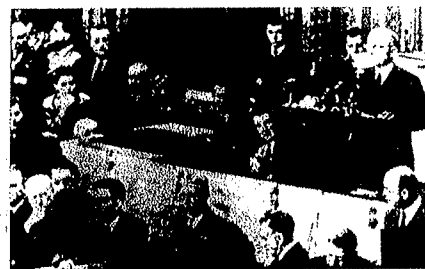
《과도립법의원》

조선문제의 유엔상정 1947년 3월 미국이 《트루먼주의》를 선포한것을 계기로 동서냉전은 세계적 범위에서 격화되고 조선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침에한 대결장의 하나로 되었다.

미국은 《트루먼주의》에 따라 제 2차 쏘미공동위원회를 계획적으로 파탄시킨 다음 1947년 9월 조선문제를 유엔(國連)에 상정시켰다.

이것은 유엔憲章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조선인민의 자주권을 무시한 엄중한 내정간섭이었다.

11월에는 《유엔臨時朝鮮委員團》을 조작하고 그의 감시밑에 조



미국국회에서 연설하는 트루먼

《트루먼주의》

미국대통령 트루먼이 선언한 미국의 대외정책이다.

공산주의와 소련의 영향을 막기 위하여 미국이 《동맹국》들에 군사, 경제적《원조》를 주는것이다. 《대소봉쇄정책》이라고도 한다.

* 좌우합작위원회 : 좌파에서 려운형, 히헌 등과 우파에서 김규식, 최동오 등이 참가한 중도좌우파들의 연합체이다.

* 《유엔임시조선위원단》 : 8개 나라대표들인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디아, 필리핀, 수리아로 구성되었다.



《유엔림시조선위원단》

1월에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기여들자 그의 입국을 거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2.7구국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투쟁은 곧 40여개의 도시에서 퍼져가 남조선 전 지역을 휩쓸었다.

각계 각층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은 물러가라!》, 《미군은 즉시 철거하라!》,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웨치면서 힘찬 투쟁을 벌리었다.

그러자 《유엔림시조선위원단》내에서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8개 성원국중 4개 국이 《위원단》사업을 포기하고 조선에서 철수할것을 요구해나섰다.

마침내 미국은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에서 남조선에서 만이라도 단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비법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켜 5월 10일안으로 선거를 실시할것을 발표하였다.



2.7 구국투쟁에 대한 남조선신문자료

미국의 단독선거책동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민족분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2) 4월남북련석회의와 단선단정반대투쟁

4월남북련석회의 민족분렬의 위험이 커가자 애국적인사들과 인민들속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한자리에 모여앉아 결정적인 구국대책을 세울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1947년 10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민전)을 통하여 南北朝鮮 政党, 社会团体代表者連席會議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신데 이어 1948년 1월에 남조선의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에게 親書를 보내시었다.

남조선에서는 김규식이 중심이 되어 1947년 12월에 民族自主連盟을 조직하고 남북요인회담을 열것을 제기하였다.

1948년 2월에 김구는 《3천만동포에게 읍소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한데 이어 김규식과 함께 南北要人会談을 제의하는 書信을 북조선에 보내었다.

이와 같은 정세속에서 주석님께서서는 1948년 3월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제시하시고 4월 14일에 평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하여 제기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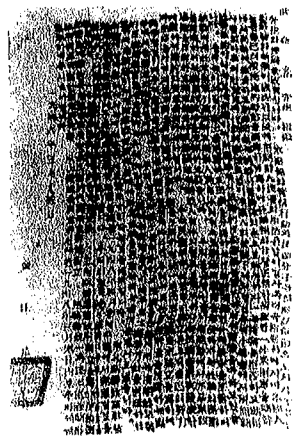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

- 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는것이다.
- ②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는것이다.
- ③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는것이다.

민족자주련맹

김규식, 홍명희, 리극로,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인사들이 민족의 자주와 좌우합작의 리념에 기초하여 결성한 련합조직이다.

여기에는 4개 련합체, 14개 정당, 25개 사회단체 및 개인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남조선
인사에게 보내신 조정장

하에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시여 회의초청장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시면서 회의성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시었다.

회의날자가 다가옴에 따라 김월송, 최동오, 홍명희 등 남조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북행길에 오르게 되었고 그후 김구, 김규식도 회의참가를 결심하였다.

1948년 4월 19일 평양모란봉극장에서는 온 민족의 관심속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열리었다.

4월남북련석회의에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과 재일조선인대표 등 695명이 참가하였다.

주석님께서서는 회의보고에서 나라가 분렬될 의기에 처한 엄중한



홍명희



김월송



리극로



최동오

이 제의에 북조선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중간세력과 우익세력들까지 크게 호응하였다.

김구, 김규식, 리극로를 비롯한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은 즉시 환영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과 리승만, 《한민당》의 반동세력들은 남북련석회의를 반대하였고 회의에 참가하려는 정당, 사회단체와 개별적인사들의 北行길을 방해하였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서는 이러한 사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서 보고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1948.4.21)

때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 南朝鮮單獨選舉를 저지파탄시키고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호소하시었다.

회의는 북과 남의 대표들의 보고와 토론을 거쳐 4월 23일에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전국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전 조선동포에게 격함》이라는 檄文을 채택하였다.



38도선을 넘어서는 김구



남북련석회의가 열리었던 모란봉극장

련석회의에 이어 4월 30일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가 열리고 《공동성명서》가 채택되었다.

이 공동성명은 남북련석회의 결정과 함께 전체 조선민족의 행동강령으로 되었다.

4월 남북련석회의는 광복후 처음으로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분열을 막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구국대책을 토의 결정한 역사적인 大民族會議이었다.

4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남조선대표들은 평양과 만경대 그리고 공장과 농촌, 학교들을 방문하였다.

그 과정에 북조선에서 이룩한 민주개혁의 성과와 인민들의 투쟁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결의를 다지었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남조선대표들은 남조선에 돌아간 후 쏘미량군同時撤去에 관한 《요청서》를 미군정에 들이대고 미군이 즉시 철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전국위원회》는 單選單政反對運動을 적극 벌리었다.

4월 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남북조선인민은 민족분열의 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섰다.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 ①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를 동시에 철거시켜야 한다.
- ② 외국군대가 철거한 다음에 내란이나 무질서를 일으키지 않는다.
- ③ 외국군대가 철거한 다음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이 전조선정치회의를 열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운다.
- ④ 남조선단독선거의 결과를 절대 승인하지 않으며 어떠한 단독정부도 인정하지 않는다.

김규식의 감상

《...북조선으로 오니 북조선은 살 토대가 있다. 남쪽은 공장이 없고 미국차관만 가져오고 여기의 공장은 일하고있으며 남쪽은 망한 집안같고 여기는 새로 잘 되는 집안같다.》(1948년 4월 25일 초대연에서 한 연설)

제주도 4.3인민봉기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강행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로골화되고 민족분열의 위기가 커가자 5.10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이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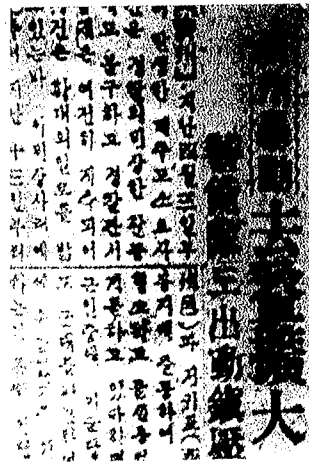
투쟁의 불길은 제주도에서도 거세차게 타올랐다. 제주도는 광복후 남조선의 그 어느 지역보다 인민위원회가 정연하게 꾸려지고 건국사업이 활발히 벌어진 곳이었다.

미군정은 제주도에서 경찰과 테로청년단, 경비대를 내몰아 인민위원회를 파괴하고 제주도인민들의 애국적인 활동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탄압하였다.

제주도인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으며 단독선거가 명백해진 1948년 2월 중순부터 각지에서 단독선거반대집회를 열고 단선반대의지를 시위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군정은 제주도인민들을 더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더는 참을수 없게 된 제주도인민들은 드디어 1948년 4월 3일 武裝蜂起를 일으켰다. (4.3인민봉기)

제주도인민들은 《미군은 즉시 철수하라!》, 《망국적단독선거 절대 반대!》 등의 구호밑에 경찰기관들을 습격하여 악질경관과 테로분자들을 처



4.3봉기탄압에 대한 신문자료



《국방경비대》에 체포된 제주도인민들

단하고 인민위원회를 다시 조직하였다.

《선거》날에는 대중적시위와 무장폭동으로 경찰과 《국방경비대》를 제압하고 《선거》를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투쟁을 더욱 확대하였다.

김달삼, 리덕구 등이 지도하는 유격대들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한나산을 근거지로 유격전을 벌려 도처에서 《토벌대》를 격파하였다.

제주도에서 항쟁이 더욱 고조되자 미군정은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토벌》경찰대를 대폭 늘여 탄압에 내몰았으며 집단학살 등 잔인한 방법으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였다.

그러하여 제주도에서는 수만명이 학살됨으로써 광복후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속에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慘事가 빚어졌다.

그러나 제주도인민들의 무장항쟁은 1년이상 지속되었으며 미군정과 그 앞잡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김달삼



리덕구



집단학살된 제주도인민들

5. 10단선반대투쟁, 《대한민국》의 조작

5.10단선반대투쟁은 선거날이 가까와지면서 더욱 치렬하게 벌어졌다. 4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인사들로 이루어진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전국위원회》는 남조선인민들이 단독선거반대투쟁에 총궐기할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로동자들은 《단선반대구국투쟁위원회》를 뭉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총파업을 일으켰으며 농민들은 선

거를 거부하여 산과 숲속에 들어가 화불투쟁을 벌렸다.

단선반대투쟁은 남조선의 156개의 시, 군들가운데 142개의 시와 군들에서 치렬하게 벌어졌다.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남조선주둔 미군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국방경비대》에 경찰임무

까지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경찰들에게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인민들을 령장없이 체포할수 있는 료례없는 권한을 주었다.

또한 《특별경비사령부》와 《향도보위단》을 강제로 조직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테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포의 분위기속에서 3월 30일부터 4월 13일에 걸쳐 선거인등록사업이 실시되었으나 그 결과는 참담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5월 10일 남조선단독선거를 끝내 강행하였다.

선거 당일 남조선의 전 지역에는 非常戒嚴令이 발포되고 탱크, 대포, 기관총으로 장비한 기동부대가 선거장이 있는 곳마다 배치되었으며 인천과 부산 앞바다에는 미국군함이 정박하고 하늘에는 미공군기가 날아돌았다.

경찰과 《향보단》은 집집들을 수색하여 인민들을 선거장에 강제로 끌어내어 투표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애국자들과 인민들은 도처에서 경찰서와 《선거사무소》, 《투표소》 등을 들이쳤으며 선거를 반대배격하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전국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애국동포들이여! 미국인들과 유엔조선위원단이 조작해내는 어떠한 기만과 위조에도 속지 말고 그것을 힘차게 폭로하자. 어떠한 강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단독선거 보이코트에 대한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 결의를 실천하여 남조선단독선거를 결정적으로 파탄시키자!》

선거인 등록에 대한 여론조사(서울, 4. 12) (통행인 1,262명중)

자발적으로 등록	84명 (6.7%)
강요에 못이겨 등록	850명 (67.3%)
등록거부	328명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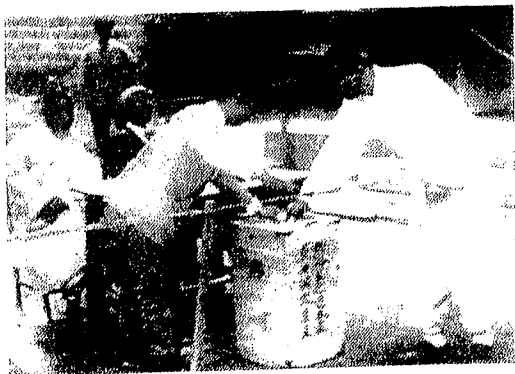
5. 10단선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여 결사적으로 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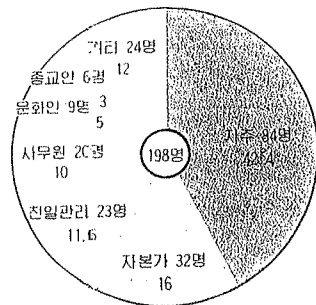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사람들밖에 선거에 참가시키지 못하였고 5. 10단독선거는 사실상 파탄된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선거결과를 날조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大韓民國》을 조작공포하였다.

《대한민국》은 통일정부수립을 바라는 전 민족의 념원을 짓밟고 미국이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세워놓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정권이었다.



선거장



남조선《국회의원》구성(%)

3) 통일정부수립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장건

5.10단선의 강행으로 조성된 정세는 민족분열의 위기를 막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구국대책을 세울것을 절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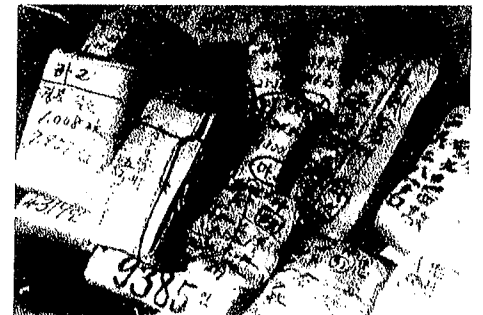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1948년 6월 29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를 여시고 엄중한 정세하에서 미군의 철거만을 앉아서 기다리면서 남조선의 매국적반동《정권》이 강화되는것을 내버려두는것은 민족과 후대들에게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로써 전 조선정부를 세울데 대한 구국대책을 제시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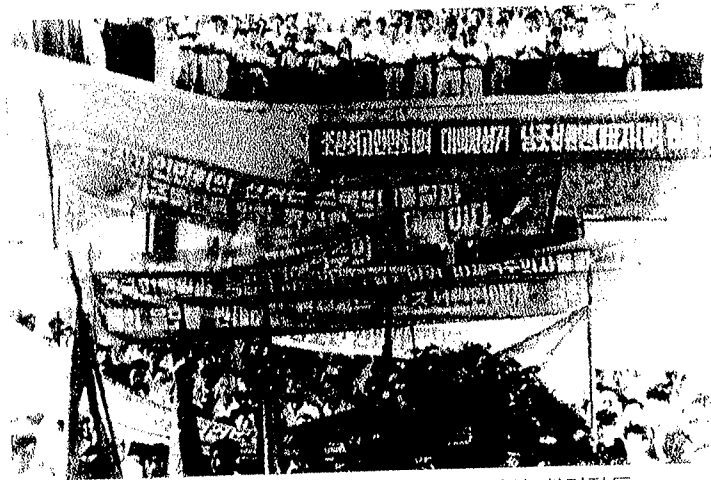
협의회에서는 南北總選舉에 의한 朝鮮最高人民會議창설과 북과 남의 대표들로 朝鮮中央政府를 수립하며 남조선에서 단독정부가 조작되면 그것을 폭로배격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북남조선 전 지역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북조선지역에서는 8월 25일 일제히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유권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여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비밀리에 선거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인민대표를 선출하고 인민대표들이 북조선지역에 모여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을 選舉하는 2중선거의 방법으로 선거가 진행되였다.



해주 대회장에 보내온 서명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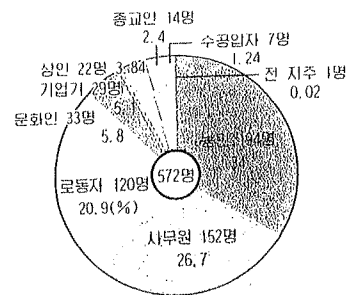


공화국창건을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참가자들

7월 15일부터 진행된 남조선인민대표자선출선거에서는 미군정과 반동들의 탄압속에서도 유권자의 77.52%에 해당하는 673만 2,407명이 서명에 참가하여 1,080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였다.

인민대표들은 8월 21일 해주에 모여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인구비례에 따라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하였다.

1948년 9월 2일부터 평양에서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열리고 9월 9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경애하는 주석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



최고인민회의의 제1차회의의 대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강을 발표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1948.9.10)

조직하였다.

공화국정부는 連立內閣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북남조선의 기본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세운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인민의 정부이며 북남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진정한 통일 정부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중앙정부의 수립은 조국의 통일과 자유독립을 위한 남북조선인민의 단결된 투쟁의 결실이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력사적승리입니다.》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 소련에 군대출수 요청서를 보냈고 1948년 12월까지 북조선지역에서 소련 군대를 완전히 철수시켰다.

중국에서 제3차 국내혁명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강건, 최광, 박락권 등 항일투사들과 부대들을 파견하고 많은 무기와 탄약,



최광



박락권



중국으로 떠나는 조선인민군 포병들

식량 등을 지원하여 중국인민을 도와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다.

통일정부를 지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통일정부의 수립에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남조선《정부》를 반대하는 구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었다.

제주도 4.3인민봉기로부터 시작된 무장투쟁의 불길은 단선단정 반대투쟁을 거쳐 남조선의 전 지역에 퍼지였다.

1948년 10월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려수의 《국군》 제14련대에 출동명령이 하달되자 군인들은 그를 거부하고

폭동에 궤기하였다. (麗水軍人暴動)

인민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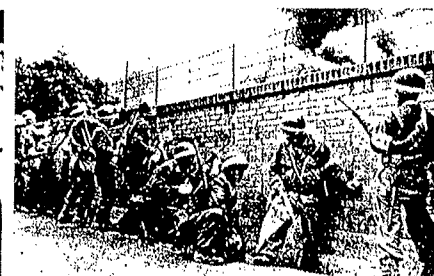
- ① 인민위원회의 려수행정기구집수를 인정한다.
-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
- ③ 《대한민국》의 분체를 맹세한다.
- ④ 남조선《정부》의 모든 법령을 무효로 선언한다.
- ⑤ 친일파, 민족반역자, 경찰관 등을 소탕한다.
- ⑥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10월 19일 폭동에 궤기한 3,000여명의 군인들은 시민들과 합세하여 려수와 순천을 해방하였다.

해방된 려수에서는 공화국기가 휘날리고 인민위원회가 복구되었으며 人民大会가 열리어 6개 항목으로 된 결의문이 채



려수항쟁탄압에 나선 미군고문과 《국군》들



택되었다.

당황한 미국은 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가 총 지휘하는 특수부대를 폭동진압에 내몰았다. 폭동진압군은 려수, 순천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순천에 달려들어 봉기군과 시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다음에 려수를 육지와 바다에서 포위하였다.

그러나 1,000여명의 봉기군과 시민들은 진압군의 포위망을 뚫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리현상의 유격대와 합세하여 유격투쟁을 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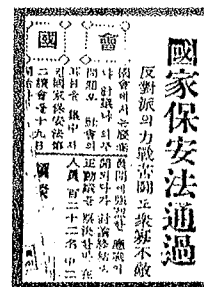
유격투쟁은 군인들의 합세로 하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남조선의 태백산, 지리산, 오대산 등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133개 군중 118개의 군에서 유격투쟁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여러곳에서는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리현상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도

남조선인민들의 적극적인 유격투쟁과 《국군》안에서의 반미, 반《정부》투쟁은 미국과 리승만《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미국과 리승만은 1948년 12월 《国家保安法》을 제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

적민주력량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에 나섰다.

우선 《국군》내부의 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하고 1949년 7월까지 4,700여명의 군인들을 처형하였다. 이와 함께 1949년 3월 《국회프락차사건》을 날조하였으며 6월에는 김구를 암살하였다.

리승만은 1949년 11월부터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아 유격대 《토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49년 한해동안에 만도 《국가보안법》에 걸려 11만 8,621명의 애국적 인사들과 인민들이 체포되거나 처형당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로동당을 비롯한 통일에국세력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이러한 정세를 통찰하시고 남조선의 애국적통일세력을 수습하고 거족적인 구국투쟁을 벌이기 위하여 1949년 6월 북과 남의 로동당을 단일한 朝鮮労働黨으로 합당하시였다. 이와 함께 북조선민전과 남조선의 8개 정당, 사회



처형당하는 인민들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이다.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를 지지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과 교류하거나 통일하자는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남조선《정권》에 대한 반항을 표시하는자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국회프락차사건》

1949년 3월 미군철수와 통일을 지향한 10여명의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을 남로당의 프락차(공작원)로 몰아 《국가보안법》에 걸려 체포한 사건이다.

단체들을 망라하여 祖国統一民主主義戰線을 결성하도록 하 시였다.

그리하여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인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었다.

4 광복후 재일동포들의 처지와 애국애족운동

1) 광복직후 재일동포들의 지향과 처지

광복후 미일당국의
재일조선인정책

조국광복당시 일본에 있던 조선동포들의 수는 무려 240만명을 헤아렸다.

이국땅에서 온갖 민족적 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재일동포들이 祖国光復을 맞이했을 때의 감격은 남달리 컸다. 그들은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광복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광복된 민족의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재일동포들은 하루 빨리 가족친척들이 기다리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 세 조선건설에 이바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의 기대와 념원은 미일당국의 부당한 책동으로 하여 제대로 실현될수 없었다.

일본당국은 패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민에게 끼친 범죄적죄행을 감추는데 급급하였으며 재일조선인들을 광복된 민족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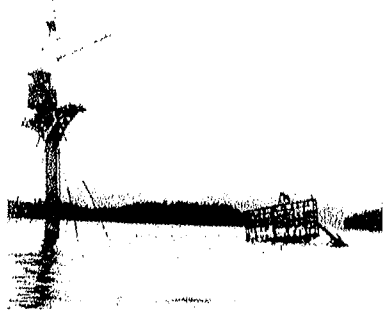


광복을 맞이한 재일동포들

1945년 8월 16일에는 수많은 朝鮮人, 中国人強制連行關係資料를 불태워버렸다.

또한 패전후 어려운 경제적혼란속에서 재일조선인들에게 식량과 米拂賃金을 주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강제련행과 《징병》문제가 일본의 전쟁범죄행위로 될수 있다는데로부터 強制送還式의 귀국조차를 취하였다.

이런 속에서 1948년 8월 24일



바다에 가라앉은 《우끼시마마루》

에는 靑森^{오 이나도} 大湊^{마이조} 항에서 수천명의 재일조선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항행하던 일본해군수송함 《浮島丸》^{우끼시마마루}가 舞鶴^{마이조}항 앞바다에서 폭파되어 수많은 동포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한편 1945년 9월 《連合軍》^{미군}의 이름으로 일본을 강점한 미군은 저들의 대일본, 대조선정책에 따라 재일조선인들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지지하고 북조선을 적대시하는 재일조선인세력은 그대로 두고 그를 반대하는 재일동포세력은 배제말살하려 하였다. 1945년 11월 1일 미점령군은 《일본점령 및 관리를 위한 기본지령》에서 조선인은 군사적으로 허용되는 한 광복국민으로 취급하지만 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敵國人》으로 취급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재일조선인을 어떤



《연합군》사령부

*《연합군》: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소국가를 반대하여 연합한 나라들의 군대이다.

《浮島丸》爆破事件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

《일본정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일어난지 46일이 지난 후인 10월 8일에 触雷^{우치레이}(機雷)에 의한 사고로 묘사하였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승선자는 5,000~6,000여명에 이르며 희생된 동포수는 수천명에 달할것이라고 보아진다.》 조선신보(2001.2.19)

귀국을 위한 재일 동포들의 투쟁

재일동포들은 미일당국의 부당한 책동에 굴함없이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벌리었다.

많은 동포들이 집과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下関, 博多, 仙崎를 비롯한 서일본의 항구도시들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공공건물이나 埠頭^{부두}창고 지이 路上에서 숙식을 하면서 귀국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었다.

이런 속에서 일본당국의 束手無策^{숙수무색}으로 먹을것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쪽배로 귀국하다가 풍랑 속에 희생되는 동포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재일동포들은 1945년 9월 朝鮮人^{조선인} 歸國者^{귀국자} 救護會^{구호회}를 못하고 귀국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한편 귀국보장과 식량, 미불임금을 지불할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을 《不法行爲》^{불법행위}, 《治安紊亂》^{치안문란}이라고 하면서 계속 방해하여나섰다.

미점령군은 1945년 11월①《計畵輸送》^{계화수송}의 미명하에 동포들의 귀국을 강제로 집행하거나 제한하려고 하였다.

②1946년 2월에는 귀국희망자등록을 실시하고 《일본정부의 지시에 따라 출발하지 않는 조선인은 歸國特典^{귀국특권}을 상실》하며 12월까지



귀국의 길에 오른 동포가족



고향으로 가기 위해 항구에 모여온 동포들

의 ③《계획수송》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재일조선인은 《일본국적을 보유한 자로 본다.》고 하였다. 이듬해 3월에는 일방적으로 ④《38도선이북에 본적을 둔 재일조선인의 귀국을 停止》한다고 발표하여 북조선에 고향을 둔 동포들의 귀국의 길을 가로막았다.

⑤심지어 미일당국은 귀국하는 동포들이 자기의 재산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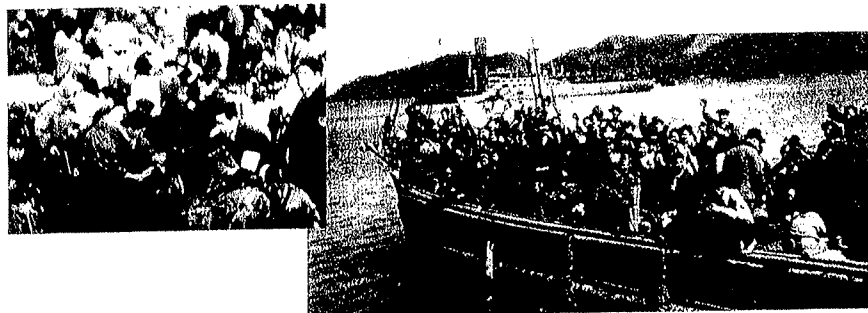
재일동포들은 미일당국의 방해책동속에서도 불굴의 투쟁과 노력으로 귀국의 길을 다그쳤다. 그리하여 1946년 3월까지 무려 140만명의 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한편 미국이 강점한 남조선에서 사회적불안과 생활난에 시달리던 수많은 귀국동포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날로 늘어났다.

귀국을 서두르던 동포들은 일시 귀국을 뒤로 미루게 되었으며 결국 되돌아온 동포들과 함께 일본에서 계속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에서 살게 된 재일동포들은 광복된 민족의 지위에 있었으나 계속되는 민족적차별과 박해로 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형편에서 재일동포들은 굳게 뭉쳐 생활안정과 민족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조선인귀국자구호회》의 방조 밑에 선까향을 떠나는 재일동포들

2) 재일본조선인련맹의 결성

광복직후 재일동포들이 직면한 귀국실행과 생활안정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조직을 빨리 내와야 하였다.

이로부터 재일동포활동가들은 1945년 8월 20일 神奈川県에서 關東地方朝鮮人会를 무은것을 비롯하여 東京, 大阪, 神戸 등 도처에서 동포조직들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각지에 무어진 여러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 통일적인 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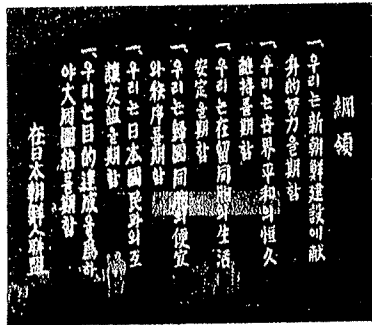
당시 재일조선인들속에서는 새 민주조선건설을 지지하는 사람, 일본공산당의 지도밑에 일본의 민주화를 쟁취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 친일파 등으로 나누어져 제 나름의 주장을 내세우고있었다.

애국적인 재일동포들은 친일파와 반동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통일적인 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1945년 10월 10일 *民衆新聞을 창간하고 10월 15일에는 在日本朝鮮人連盟(조련)결성대회를 가지었다.

대회에서는 조직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려던 친일친미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련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조련의 선언과 강령, 규약, 활동방침들을 채택하였다. 선언과 강령, 활동방침들에서는 조련이 새 조선건설에 모든 힘을 다한다는것과 동포들의 귀국사업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인민들과의 친선관계를 도모한다는것을 밝히었다.

*민중신문: 재일동포들의 첫 신문이다. 이 신문은 그후 《해방신문》, 《조선민보》, 그리고 《조선신보》로 발전하였다.



조련의 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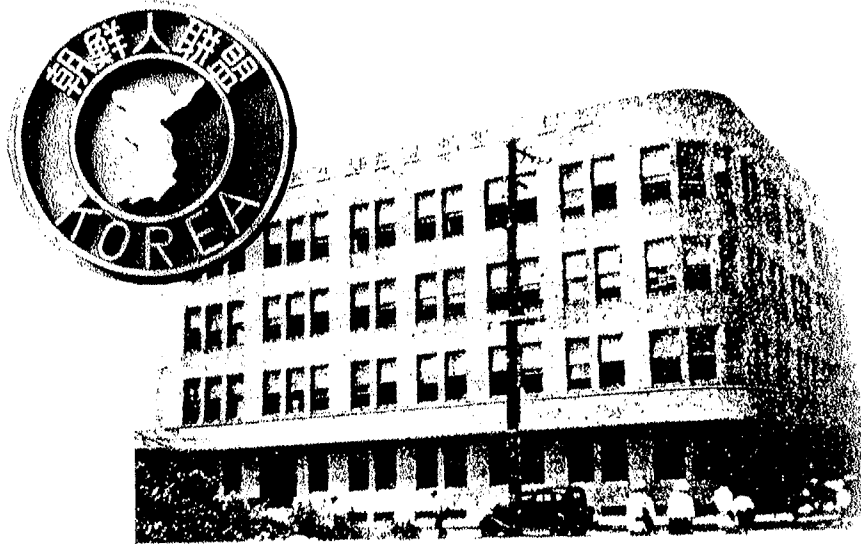
조련은 새 조선건설에 이바지하며 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재일동포들의 愛國的組織이었다.

또한 각계각층의 재일동포들을 망라하고 그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통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海外僑胞조직이었다.

조련결성후 그안에서는 북조선의 새 민주조선건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미국과 리승만에 추종하는 사람들사이에 정치론선상 문제를 놓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다.

조련은 1946년 2월에 제2차림시대회를 열고 북조선의 새 민주조선건설로선을 지지하는 입장을 뚜렷이 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과 리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1946년 10월 在日本朝鮮居留民団(민단)을 조직하고 조련에 대립하여나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의 마크와 중앙본부

섰다.

이러한 때인 1946년 12월 13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공개서한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여 조련은 재일조선인 운동의 지침을 가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공개서한에서 公開書簡에서 재일동포들이 비록 일본에서 살고있으나 광복된 新國家 민족으로서의 자기 지위에 맞게 전 민족의 통일적민주국가건설과 조국의 통일발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을 호소하시였다.

공개서한을 받들고 조련은 자기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대중을 묶어세워 애국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조련은 절대다수 동포대중의 지지를 받는 최대의 대중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조련은 1947년 7월까지 일본 전국각지에 48개의 현본부와 633개의 지부, 1,705개의 분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산하에 계층별, 직업별로 되는 대중단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1947년 3월 在日本朝鮮民主青年同盟(민청)이 결성되고 10월에는 在日本朝鮮民主女性同盟(녀동)이 결성되였다.



민청결성대회장



녀동대표들

3) 재일동포들의 권리쟁취투쟁

1946년 이후 귀국을 미루고 일본에서 살게 된 많은 동포들은 朝鮮人部落을 형성하고 안정된 일자리도 없이 闇市場을 통하여 겨우 생활용품을 구하여 연명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미점령군의 지시에 따라 재일동포들에게 《의무의 면에서는 일본인》, 《권리의 면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법적지위》를 강요하며 동포들을 로골적으로 탄압하였다.

1946년 2월 이후에만 하여도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하여 《非日本人에게 普通稅負擔을 適用할데 대한 件》, 《朝鮮人不法行爲에 관한 件》 등 수십가지 악법을 조작하여 재일동포들의 생활권을 위협하였다.

또한 일본당국과 반동들은 《사회질서는 非日本人에 의하여 문란되고있다.》느니, 《조선인들이 암거래시장을 문란시키고있다.》느니 하면서 《第三国人에 의한 傍若無人한 행동》이 일본의 사회경제적혼란을 조성하는듯이 헛소문을 퍼뜨리며 동포들의 집을 습격하여 재산을 빼앗아갔으며 심지어 살해까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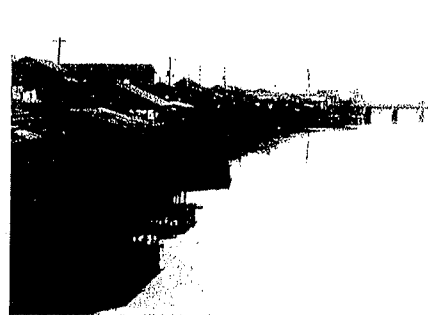
이에 격분한 재일동포들은 조련의 산하에 보안대, 자치대 등을 뒀고 자체의 힘으로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떨쳐나섰다.



암거래시장

제3국인

《련합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인민들을 차별하여 쓴 명칭이다. 재일동포들이 《광복된 민족》으로서 지위를 주장하는것을 싫어하며 반감을 가지고 사용하였다.



재일조선인부락(福岡 大浜)



동포부락을 습격하는 경관들

이와 함께 조련은 중앙과 현 본부에 生活權擁護鬭爭委員會를 조직하였으며 1946년 9월에는 朝鮮人彈壓反對鬭爭委員會를 결성하여 투쟁을 보다 조직화하고 대중적으로 확대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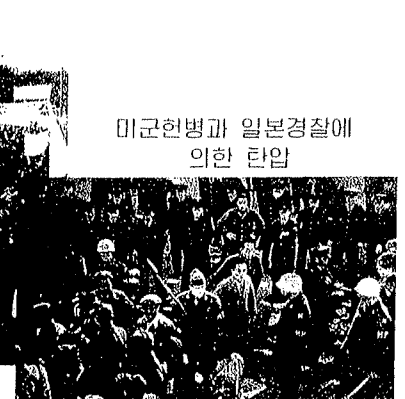
1946년 12월 20일에는 4만여명의 동포들이 도쿄에 모여 在日朝鮮人生活擁護全國大會를 열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탄압을 반대한다!》, 《재일조선인의 생활권을 보장하라!》는 구호 밑에 일본정부에 생활권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일대 시위를 벌리었다.

일본경찰과 미군헌병들은 日本首相官邸앞에서 시위하는 군중들에게 실탄을 쏘고 대표들을 체포하였으며 군사재판에서 종로동 5년, 남조선에로의 《強制送還》의 판결을 내리는 행위까지 하였다.

조련과 재일동포들은 미일당국들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1947년



재일본조선인생활옹호전국대회장



미군헌병과 일본경찰에 의한 탄압

5월부터 《外国人^{재일동포}登録令》반대 투쟁, 그후 《外国人의 財産取得에 관한 政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리었다.

재일동포들은 이 법들이 《재일동포들의 경제적, 사회적자유를 빼앗고 생활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일본도처에서 그를 반대하는 쾰기대회와 시위들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당국은 1949년 3월 《外国人의 財産取得에 관한 政令》에서 《1945년 9월 2일 이전에 일본에 거주한 재일동포들은 제외된다》는것을 공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의 민족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견결한 투쟁으로 재일동포들은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애국운동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생활권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외국인등록령》

1947년 5월 2일 勅令으로 공포되었다.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입시키고 조선인을 통계관리하기 위한 벌칙과 강제퇴거를 규정한 탄압령이다.

《외국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정령》

1949년 3월 15일에 공포되었다.

정령에는 외국인인 토지, 건물, 사업장들을 취득하거나 그런 재산에 대한 賃借權, 地上權, 抵当權 등을 취득할 때에는 일일이 일본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생활권보장에 관한 출판물



4)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

민주주의적민족 교육의 시작

조국이 광복된 직후부터 재일동포들은 자녀들에게 일제에게 빼앗겼던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며 그들을 새 조국건설의 참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전국각지에 国語講習所를 내왔다.

조선은 재일동포들의 장기체류가 예견된 상황에서 1946년 4월에 임시적성격을 띤 국어강습소를 정규교육형태를 갖춘 初等学院으로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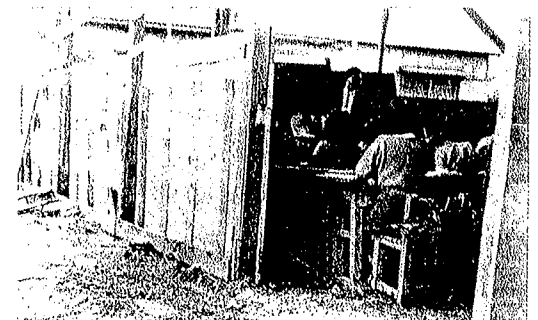
1946년 10월 5일에는 東京朝鮮中学校를 창립한데 이어 오사카, 효고, 아이찌 등지에 중학교를 세우고 중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48년 10월에는 도쿄조선중학교에 고급부를 병설함으로써 中等教育体系를 갖추었다.

당시 일본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동포들이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있던 조건에서 학교를 세운다는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조선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의 전국투쟁에 발맞추어 《돈있는 사람은 돈을, 힘있는 사람은 힘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 우리 학교를 세우자!》라는 구호밑에 모두가 학교건설에 떨쳐나섰다.

동포들은 일본의 전국 각지에서 타다남은 공장이나 창고 등을 리용하여 우리 학교를 세워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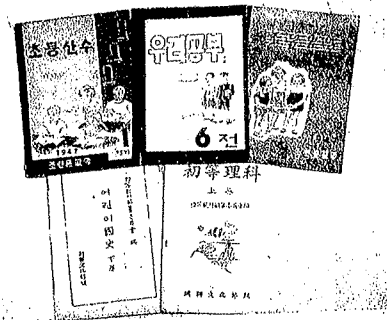
재일조선인에국적활동가들은 자신의 손으로 교과서를 편찬하고 등사



어려운 조건에서 운영된 우리 학교



교과서편찬문제를 토의하는 일군들



조련시기 편찬된 교과서들

기로 찍어냈으며 교원을 찾아내는 한편 양성하기도 하였다.

조련과 재일동포들의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1948년 4월에 이르러 학교수는 586교, 학생수는 6만여명에 이르렀으며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잡지, 참고서를 전문적으로 출판보급하는 《우리동무사》(學友書房의 전신, 1949.5.5)도 창립되었다.

동포자녀들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 말과 글, 력사와 지리를 열심히 배우며 새 조선의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났다.

4. 24교육투쟁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달가워하지 않은 일본당국은 미점령군의 指令에 따라 1948년 1월 24일 《朝鮮人設立學校의 取扱에 대하여》라는 通達을 내려 자주학교를 폐쇄하고 동포자녀들에게 일본교육을 시킬것을 강요하였다.

조련과 재일동포들은 이를 반대하여 3월 1일 일본작지에서 대회를 열었으며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자주성확보》의 구호밑에 시위를 벌리었다.

3월 23일에는 朝鮮人教育対策委員會를 뚫고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벌려나갔다.

미일당국은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야마구찌, 호고, 오까야마, 오사까, 도쿄, 이바라기 등 지역에서 《學校閉鎖令》을 내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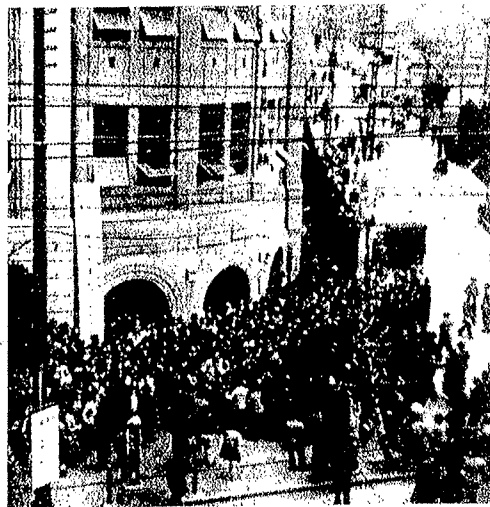
4월 23일에는 《在日朝鮮人에게 警告함》이라는 위협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학교들을 강제로 폐쇄하였으며 이에 항의해나선 동포들을 수많이 체포구금하였다.

재일동포들은 미일당국의 탄압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갔다. 4월 24일 호고현의 3만여명의 재일동포들은 군중집회를 가지고 대중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현지사로부터 《학교폐쇄령》을 철회하고 동포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미점령군은 《학교폐쇄령》철회를 무효로 선포하고 호고지구에 《非常事態》를 선포하였으며 수천명의 일본무장경관과 미군헌병들을 내몰아 동포들을 탄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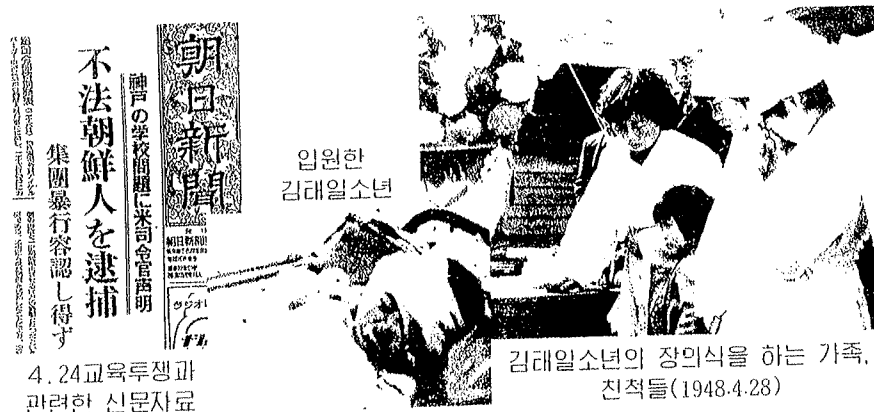
학생들을 교실에서 내쫓고 있는 일본경관들



《학교폐쇄령》반대투쟁(호고현 1948.4.24)

오사까에서도 7,000여명의 일본기동경찰대와 미군헌병들이 《학교폐쇄령》철회를 요구하는 4만여명의 동포들에게 물을 쏘아대고 심지어 총까지 쏘는 류혈적인 탄압을 감행하였다.

수많은 동포들이 쓰러졌고 16살의 김태일소년이 총탄에 맞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으며 8명의 녀학생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4.24교육투쟁과
관련한 신문자료

재일동포들은 《피흘리며 쓰러진 동포들의 원수를 갚자!》고 외치면서 맨손으로 헌병, 경찰들과 용감하게 싸웠다.

조국인민들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진보적인민들도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고무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었다.

이에 고무된 재일동포들은 더욱 굳게 뭉쳐 대중적인 투쟁을 치렬하게 벌렸다.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의하여 일본당국은 1948년 5월 5일 《조선인의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것》을 밝힌 覚書에 서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해외교포교육력사상 류레없는 4.24教育闘争(阪神教育闘争)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손에 손을 잡고 투쟁에 나선 학생들



《우리 학교 지키자》

5) 통일정부수립을 지지하는 투쟁

조국땅우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념원하던 조련과 제일동포들은 남북련석회의에 자기 대표를 파견하였으며 남조선의 단독선거를 저지파탄시키고 통일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조련제14차중앙위원회(1948.4)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1948년 4월 조련은 민청을 비롯한 대중단체들로 《남조선단선단정반대구국투쟁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조직하고 대중적인 투쟁을 벌렸다. 남조선에서 단독선거가 강행되던 당일인 5월 10일에는 도교 등 각지에서 중앙과 지방별 군중대회를 열고 시위를 진행하였다. 5월 28일에는 도교관하 2만여명의 동포들과 1,000여명의 우리 학교 학생들이 後樂園運動場에서 統一政府樹立促成大運動會를 진행하여 동포들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였다.

조련은 1948년 2월부터 공화국헌법조안전문을 동포들속에 소개선전하는 동시에 각종 모임들과 출판물을 통하여 그에 대한 해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조련의 각급 조직들과 각 산하단체들에서는 헌법조안토의사업이 벌어졌다.

조련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를 《統一政府樹立闘争月間》으로 설정하고 남북총선거를 지지하는 다양한 대중적모임과 시위를 벌리었다.

특히 8.15광복 3돐기념일에는 일본각지에서 《人民中央政府樹立促成人民大会》를 열고 남조선《단독정부》를 분쇄하며 통일정부를 수립할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요구하는 시위



공화국창건경축모임

하였다.

조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자 그를 열렬히 지지 환영하면서 중앙과 지방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樹立경축준비위원회를 뒀고 1948년 10월 9일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경축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준비를 다그쳤다.

이렇게 되자 미일당국은 공화국을 지지하는 재일동포들의 애국적기개를 꺾어보려고 10월초에 《북조선국기 또는 그를 표시하는 뼈라는 일본국내에서 일체 게시하는것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으며 8일에는 공화국창건경축대회에서 공화국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것을 공포하였다.



공화국창건을 지지환영하는 시위

재일동포들의 기세를 크게 시위하였다.

그러나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은 통일정부수립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국시}國是》를 준수한다는것을 밝히고 단체명도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고쳐 조련과 대결

그러나 재일동포들은 전국각지에서 공화국창건경축대회를 열었으며 군중적인 경축행사와 시위를 벌리고 共和國旗揭揚鬭爭을 치렬하게 벌렸다.

10월 11일에는 宮城郡 仙台中에서 동포 2,000여명이 공화국기를 창공에 날리며 공화국창건경축운동을 열었는데 미군

헌병이 권총을 발사하여 한 동포가 중상을 입고 수많은 동포들이 체포투옥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1948년 10월 8일 공화국창건 재일조선인경축단을 평양으로 불러주시었으며 12월 23일에는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서는 재일동포들이 自主獨立國家公民의 높은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 세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고 그들이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련마하여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민족간부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또한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조련은 1949년 2월에 제17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조국이라는것을 조직적의사로 천명하였다.

회의후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에 직결하자!》는 구호 밑에 경애하는 주석님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갔다.



공화국기발을 지키기 위한 시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수립을 지지환영한 소식을 전한 《해방신문》(1948.11.15)

《작은 전쟁》과 전면전쟁준비

으키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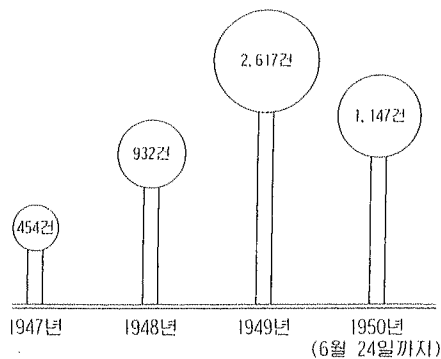
38도선무력침공사건은 공화국경비대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그때마다 좌절되었으며 38도선에서의 《작은 전쟁》은 파탄되었다.

남조선《국군》만으로는 공화국을 침공할수 없다는것을 타산한 미제는 조선전쟁개입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는 한편 평화통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여러 사건을 날조하여 애국적인민들과 진보적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대로 검거투옥학살하였으며 남조선유격대에 대한 《토벌》과 숙군소동을 벌리어 전쟁도발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1950년 1월 26일 남조선과 《韓米相互防衛援助協定》을 체결하였으며 일본과 남조선간에도 여러 협정을 맺게 함으로써 미, 일, 남조선의 군사적결탁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러한 시기인 1950년 남조선에서의 정치경제적위기는 수습할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으며 《5. 30선거》의 결과 리승만《정권》은 붕괴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쟁도발을 더는 미룰수 없다고 생각한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공화국에 대한 무장침습건수

조선전쟁개입을 위한 계획

- ① 미국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뗄것이라는 허위성명문 발표
- ② 전쟁도발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쫓이기 위한 선전
- ③ 유엔의 간판밑에 미제의 조선전쟁개입 합리화

6월 17일 미국무성고문 텔레스를 남조선에 급히 보냈으며 국방장관 존슨과 합동참모본부의장 브랫들리를 일본에 보내어 전면적인 전쟁도발준비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38도선일대를 사찰하고 전쟁도발날자를 확정한 텔레스는 6월 21일 도쿄에서 맥아더, 존슨, 브랫들리와 비밀회담을 가졌다. (일명 東京4者會談) 이 회담에서는 대일단독강화조약문제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지에 있어서는 조선에서의 침략전쟁도발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령토인 대만강점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한편 리승만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마지막준비를 다그쳤다.

그리하여 38도선지역에서의 《국군》의 配備變更이 끝나고 일시에 《北進》할수 있는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공화국의 평화통일노력
공화국정부는 공화국의 헌법에서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조국의 平和統一을 시종일관 주장해왔으며 미제와 리승만의 전쟁도발책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도 어떻게

《5. 30선거》

5월 30일에 진행된 남조선《국회의원선거》. 총의석 210석 가운데서 리승만세력이 불과 47석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남북협상파》를 비롯한 반리승만파들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였다.



38도선을 시찰하는 텔레스

브랫들리, 존슨, 맥아더

해서든지 전쟁을 막고 평화 통일을 이룩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발기에 의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1950년 6월 7일 확대회의를 열고 《平和의祖国統一方策推進에 관한 呼訴文》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호소문을 남조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 《유엔조선위원단》에 전달하기 위하여 6월 10일 3명의 대표를 남조선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조종밑에 리승만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11일에는 3명의 대표를 체포하고 야수적인 박해를 가하였다.

조성된 엄중한 형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6월 19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주동적인 조치를 담은 《평화적조국통일주진에 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서 공화국정부는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단일한 전 조선립법기관으로 편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남조선《국회》가 교섭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6월 21일에 자기의 대표단을 서울로 파견하든가 또는 남조선《국회》대표단을 평양에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었다. 또한 북남조선의 군대를 단일한 군대로 개편하고 《유엔조선위원단》을 조선에서 즉시 철거시킬 것을 밝히었다. 이 제의는 평화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다시금 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 제의마저 거부하고 끝내 전면전쟁을 도발하는 범죄의 길로 나갔다.

호소문에 담긴 조국통일방책

- ① 8월 5~8일 전 조선적인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최고립법기관을 창설하며 8.15광복 5돐기념일에 서울에서 최고립법기관회의를 소집한다.
- ② 이를 위하여 6월 15~17일에 해주 또는 개성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대표자협의회를 소집한다.

2 조선전쟁의 개시와 확대

1) 전면전쟁으로 확대

전면전쟁의 개시,
《유엔군》의 참전

미제의 사측밑에 리승만은 1950년 6월 23일부터 38도선의 공화국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포사격을 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全面戰爭으로 확대되었다.

공화국정부는 즉시 리승만《정부》에 전쟁행위를 당장 중지할것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하는 남조선《국군》

을 요구하면서 만일 침공을 멈추지 않을 때에는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전쟁의 불길을 계속 확대하였다.

6월 25일 공화국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소집

되고 뒤이어 共和国內閣非常會議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회의에서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화국경비대와 인민군부대들에 적들의 무력침공을 저지시키고 즉시 反攻擊에로 넘어갈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었다.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용사들



전체 조선인민에게 방송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1950.6.26)

또한 6월 26일에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 연설을 통하여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는 싸움으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불러일으키시었다.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부대들은 미제가 대병력을 더 끌어들이기전에 적의 기본집단을 짧은 기간에 소멸하고 남조선을 해방 할데 대한 전쟁 1계단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공격속도를 높여 6월 28일 서울해방전투를 벌렸다.

새벽 5시 류경수부대장이 지휘하는 망크 부대가 열어놓은 돌격로를 따라 인민군부대 들은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11시 30분 서울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서울을 빼앗긴 남조선《정부》는 대혼란에 빠졌으며 붕괴의 위기에 처하였다.



류경수



서울해방

인민군부대의 타격을 받은 남조선《국군》의 기본집단은 전면적으로 와해되고 戰線은 허물어져갔다.

조선에서 전면전쟁이 시작되자 미제는 예정했던대로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전면적무력간섭으로 나서는 일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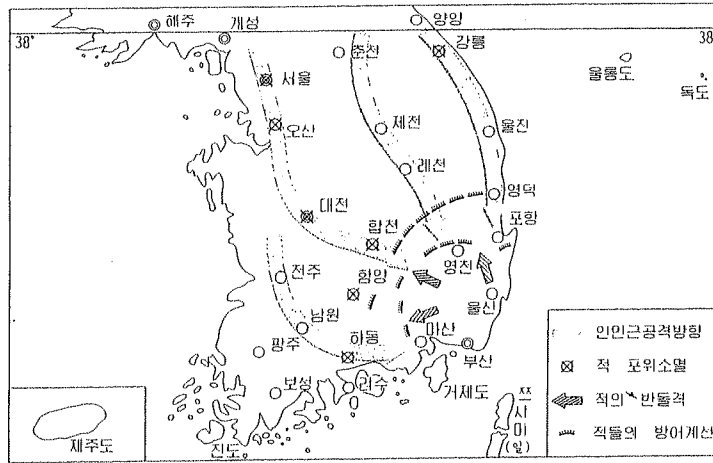
1950년 6월 26일 미제는 유엔安全保障理事会 緊急會議를 소집하여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인



《유엔군》파견을 비법결정하는
유엔안보리사회

민군대의 38도선에로의 철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미제는 6월 27일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조선에 대한 유엔가맹국들의 무력간섭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7월 7일에는 미국이 지휘하는 《유엔군》을 조직할데 대한 《결의안》

※《유엔군》: 미국, 오스트랄리아, 벨지끄, 캐나다, 콜롬비아, 타이, 필리핀, 영국, 남아프리카련방,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에티오피아, 그리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16개 나라 군대로 편성되었다.



조국해방전쟁 제 1 계단략도(1950.6.25-9.15)

을 채택하였다.

미제는 비법적인 《유엔결의안》에 기초하여 유엔의 기발을 들고 조선전쟁에 전면개입하였다.

남조선의 넓은 지역의 해방

조성된 정세하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1950년 7월 8일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라는 방송연설에서 전 제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미제를 격멸소탕할것을 호소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적들을 무찌르며 계속 남으로 진격하였다.

바빠난 적들은 금강계선에 방어진을 꾸리고 ^{임시수도} 臨時首都로 정한 대전에 미 제24步兵師團을 비롯한 대병력을 집중시켜 인민군대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하였다.



대전으로 진격하는 인민군전투원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7월 중순 서울에 있는 戰線司令部를 찾으시어 전선사령관 김책을 만나시고 인민군부대들이 금강을 단숨에 넘어가 미군을 포위소멸할데 대한 대전해방전투



대전해방

의 과업을 주시였다.

인민군부대들은 7월 19일 대전을 포위하고 20일 새벽 탱크부대와 협동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전시내에 돌입한 인민군부대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려 미 제24보병사단을 완전히 격멸하고 사단장 ^{생포} 生捕하였으며 이날 12시에 대전을 해방하였다.

해방된 남조선지역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고 토지개혁, 노동법령이 실시되었다.

인민들은 새 생활의 기쁨을 안고 복구공사돌격대, 생산복구대 등을 조직하여 각지에서 파괴된 다리와 도로, 공업시설을 복구하여 진격하는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지원하였다.

서울에서는 적비행기의 폭격속에서도 미제가 ^{패주} 敗走하면서 파괴한 수도관복구공사와 다리, 도로들을 며칠사이에 복구하였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해방된 지역에서 수많은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의용군} 義勇軍입대를 ^{반원} 嘆願하였다.

1950년 6월 29일 성균관대학의 청년학생들이 전선출동탄원집회의를 열고 280여명이나 전선에 탄원한데 이어 7월 2일과 3일에 서울에서만



대전에서 사로잡힌 미제침략군들



의용군입대를 탄원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

서울의 청년학생들이 《학생호》비행기, 땅크헌납운동을 발기한데 이어 그리스도교인들과 상공인들도 《그리스도교호》, 《상공호》비행기헌납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리스도교호》비행기헌납금은 9월 7일까지 3,100만원에 달하였다.

로동자, 농민들도 군기헌납금운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였다.

문화예술인들은 전선위문예술단을 무어 전선순회공연을 진행하여 인민군군인들을 고무하였으며 녀성들은 지성이린 위문품을 인민군대에 보내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이 인민군대를 지원하여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조선전쟁은 조선민족과 미제와의 대결전으로 되었다.



안영애



공재화

전체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인민군대는 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전쟁이 일어난지 한달 남짓한 사이에 남조선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였다.

1만 6,000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전선에 탄원하였다. 서울의 청년학생들에 의하여 발기된 전선탄원운동은 대중적인 동으로 널리 퍼져 안영애, 공재화를 비롯하여 그 수는 8월 15일까지 45만명에 달하였다.

2) 조선인민군의 전략적후퇴와 새로운 반공격

조선인민군의 전략적후퇴

인민군대의 드센 공격에 패전을 거듭한 미제는 대병력을 동원하여 인천과 락동강계선에서 《總攻勢》를 벌려 인민군의 전선과 後方을 갈라놓은 다음 인민군주력부대를 《포위소멸》하고 전 조선을 강점하려고 하였다.

미제는 락동강계선에서의 總反擊과 함께 1950년 9월 13일 5만여명의 병력과 수백척의 함선, 1,000여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仁川上陸作戰을 감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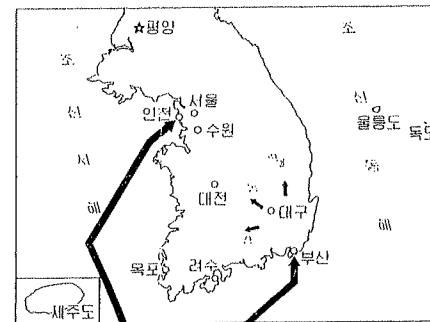


리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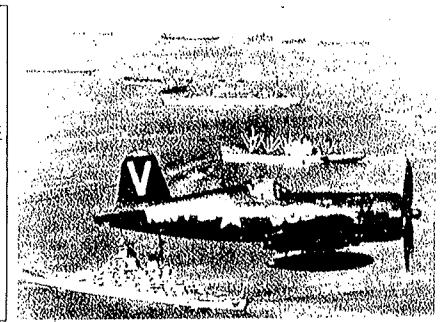
인천의 관문인 월미도방어전투를 담당한 리대훈중대장을 비롯한 海岸砲中隊員들은 비할바없이 우세한 미제와 결사전을 벌려 적의 상륙계획을 3일간이나 지연시켰다.

미제가 두 전선에서 대병력으로 달려드는 조건에서 전선과 후방이 차단되고 락동강계선까지

《총공세》에 동원된 적의 무력	
병력	28만여명
함선	300여척
포	4,700여문
땅크	970여대
비행기	1,800여대



맥아더의 《총공세》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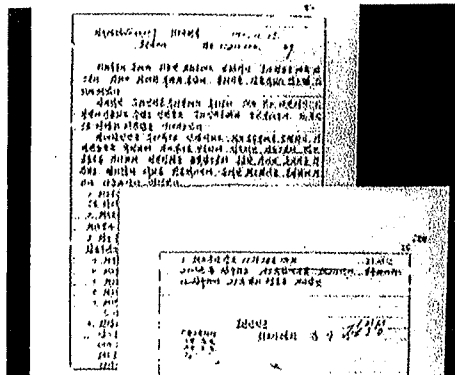


상륙작전에 동원된 군함, 비행기들

월미도방어전투

1 개의 해안포중대와 1 개 중대의 보병들이 4 문의 포와 몇십정의 저격무기로 적구축함 3척을 포함하여 각종 함선 13척을 격침적파하고 적의 상륙을 3일간이나 지연시켰다.

그리하여 인천-서울지역 방어작전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2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경애하는 주석님의 명령서

진격하였던 인민군주력부대가 적의 포위속에 들 위험이 조성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불리한 정세를 주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최대한 시간을 쟁취하여 계획적인 후퇴를 조직함으로써 인민군주력부대를 구출하고 새로운 후비부대를 편성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할데 대한 전쟁2계단의 전략적방집을 제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적후에 제2戰線을 형성하여 적을 앞뒤에서 타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인민군용사들은 38度線界線, 원산과 양덕 일대에서 완강한 방어戰을 벌려 주력부대의 撤收를 보장하였다.

인민군주력부대는 600~700km의 장거리후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다그쳤다.

한편 최현군단장의 지휘하에 제2전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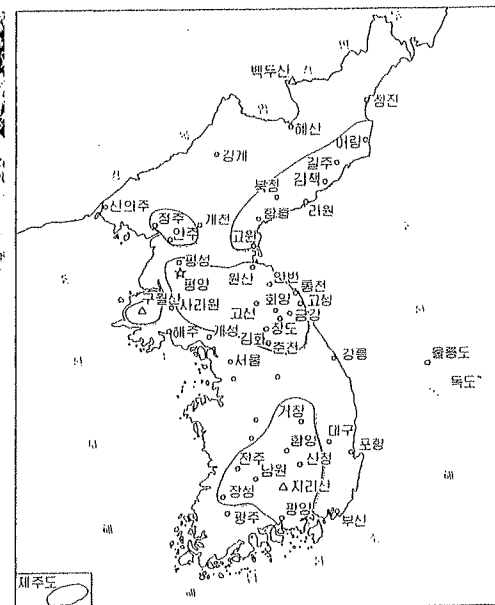
진현

*제2전선: 적의 기본전선 뒤쪽에 펴는 전선이다. 조선전쟁에서 진행된 제2전선은 인민유격대와 정규군대의 내련합부대들이 대규모적인 적후투쟁을 벌린것이 특징이다.



협동작전을 토의하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유격대지휘관들

대들은 중부조선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으며 북조선의 많은 지역에서 구월산유격대 등 유격대, 소년근위대, 청년근위대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제2전선부대들과 유격대의 활동지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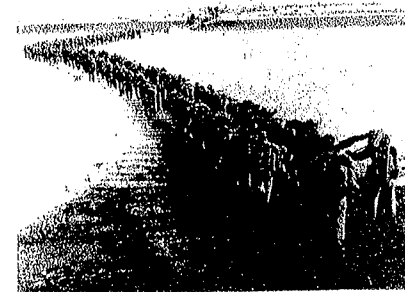
남조선에서도 리현상이 지휘하는 지리산유격대를 비롯한 여러 유격대들이 인민군 소부대들과 합세하여 적극적인 유격전을 벌렸다.

조선인민군의 새로운 반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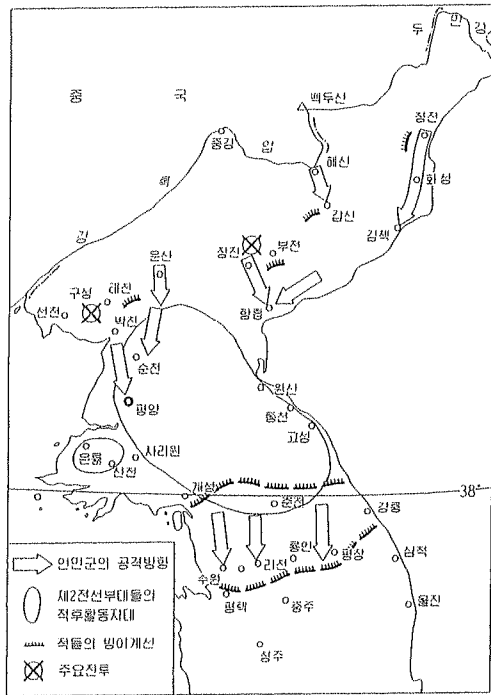
일시적난국을 이겨낸 인민군대는 반공격으로 넘어갈수 있게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꾸렸으며 武器戰鬪技術機材를 보강정비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미제는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중국 동북지방을 폭격하고 중국에 대한 《原子彈投下說》까지 내돌렸다.

형제적중국인민들은 자기의 조국을 보위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1950년 10월 《抗米援朝保家衛國》의 기치 밑에 志願軍을 조직하여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부대들



전쟁제3계단략도

안에 반공격으로 넘어가 적들을 38도선이남까지 구축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전쟁3계단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조중련 합부대들은 1950년 10월 하순부터 반타격전을 벌리었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11월 24일 《크리스마스총공세》를 감행 하였다.

11월 25일 인민군부대들은 전선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을 맞받아 일제히 결정적인 반격을 개시 하였다.

인민군부대들과 중국인민지원

國際民主團體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단체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은 연대성모임을 열고 성명, 호소문, 공개서한 등을 발표하였으며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를 웨치며 군중대회와 시위들을 벌렸다.

군사정치정세는 공화국에 유리하게 전변되었다.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적의有生力量을 대량적으로 섬멸하면서 빠른 시일

《크리스마스총공세》

미제가 《크리스마스》전으로 전선을 압록강, 두만강일대에 까지 내민다고 하면서 벌려놓은 대규모적인 공세이다. 맥아더는 《나는 그들(미군)이 크리스마스성찬을 자기 집에서 먹게 되리라는것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사기가 떨어진 미국 병사들을 작전수행에 추동하였다.



평양해방

군은 청천강부근전투, 장진湖畔전투를 비롯하여 모든 전선에서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안기면서 계속 남으로 진격하였다.

반공격으로 넘어간 부대들은 제2전선부대들과의 협동작전으로 12월 6일 평양을 해방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38도선이북의 전지역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미제의 《크리스마스총공세》는 완전히 좌파되었으며 인민군부대들을 포위소멸하려던 적들은 오히려 역포위에 걸려들어 참패를 당하고 한달도 못되어 38도선이남으로 쫓겨났다.

미제는 수치스러운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조선에서 원자탄까지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새로운 군사적모험에 매달렸다.



장진호반전투에서 패배하여 후퇴하는 미제침략군과 포로된 침략군

3)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진지방어전으로의 이행 1 년간에 걸쳐 벌어진 조선전쟁은 1951년 6월에 이르러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적의 방}敵我雙方이 대치상태에 들어섰으며 전선은 기본상 고착되었다.

이 시기 미제는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면서 더 많은 병력과 비행기, 탱크, 포들을 끌어들이어 인민군대가 차지하고있는 전선을 돌파하며 동서 兩海岸으로부터 상륙작전의 기회를 노리었다.

경계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이러한 정세에서 전쟁의 중국적 승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진지방어전}陣地防禦戰을 전개할데 대한 전쟁4계단의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었다.

주석님께서서는 진지방어전을 벌리기 위하여 진지를 ^{경도화}坑道化하고 그에 의거하여 갱도전을 벌리도록 하시었다.

갱도전

적들의 물질기술적우세를 무력화하고 적을 소멸하는 전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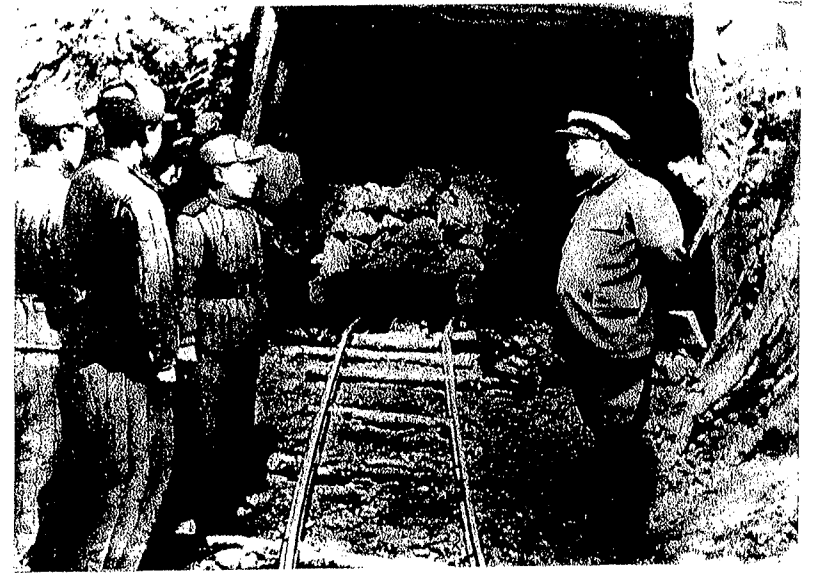
갱도를 기본으로 한 방어전지는 38도선을 따라 동서 약 240km에 걸쳐 구축되었다.

인민군부대들은 1951년 6월 중순부터 적극적인 진지방어에로 넘어가 짧은 기간에 전선의 고지들과 해안방어지대들을 갱도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적들의 공격기도를 짓부셔버렸다.

인민군부대들에서는 진지방어전의 적

병력	총	힘선	포	자동차	비행기	탱크와 장갑차	탄환
살상포로	파괴 및 로획	격침	파괴 및 로획	파괴 및 로획	격추 및 로획	파괴 및 로획	로획
59만 8,000여명	14만 6,000여정	122척	6만 8,038문	9,145대	1,730대	1,997대	120차량

전쟁 1년동안에 미제가 입은 손실



갱도진지굴설작업현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계하는 김일성주석님

극성을 높이기 위하여 습격조, 비행기사냥군조, 탱크사냥군조, 저격수조 등 여러가지 주제전법을 적극 적용하였다.

신기철, 박원진 등이 습격전투에서 ^{적 화구}敵火口를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인민군용사들은 도처에서 여러가지 전법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들의 병력과 전투기술기재들을 끊임없이 소멸약화시켰다. 그리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전선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신기철



박원진



비행기사냥군조

1211고지방어전투 : 인민군대의 적극적인 진지방어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은 미제는 전선西部에서 대공세를 벌릴것처럼 가장하면서 대병력을 전선東部に 은밀히 끌어들이며 대규모적인 ^{바 기}《夏期 및 秋期攻勢》를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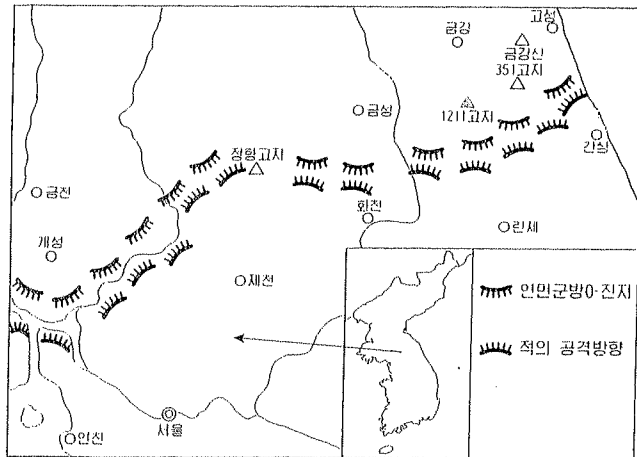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적들의 움직임을 꿰뚫어보시고 서해안의 일부 방어부대들을 전선동부에 신속히 이동집결시키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시는 한편 전선동부의 중요한 고지들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꾸리도록 하시였다.

미제는 1951년 8월 중순부터 《하기 및 추기공세》를 감행하였다.

적들의 《하기 및 추기공세》를 격파하고 전선의 군사정세와 전쟁전반의 운명을 결정하는데서 1211高地는 매우 중요한 고지였다.

주석님께서는 1951년 9월 23일 砲火속을 헤치시고 지혜산(강원도 금강군)까지 나가시여 1211고지방어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르치시였다.

미제는 9월 29일부터 전투기술기재를 총동원하여 1211고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하루 평균 3~4만발의 砲彈과 爆彈을 퍼부으면서 하루에도 10여차례씩 파도식으로 련일



전쟁 제4계단 략도(1951. 6 ~ 1953. 7. 27)

공격을 되풀이하였다. 고지의 바위는 부서져 가루가 되고 아름다리나무는 뿌리채 날아났으며 산봉우리는 평균 1m나 낮아졌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께서!
원수들은 악착스럽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 함일의 전동통을이온
우리는 비록 몸이 천조
각만 쏘아나는데 있어
에도 한놈의 적도 몰려
놓치 않겠습니다! 다 우리
에겐 죽어물릴 땅은 있
어도 살아물릴 땅은 있
한치도 없다는 것을 꼭
꼭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사들이 서 있는
한 1211고지는 영원히
조국의 고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 1211고지용사들이
올린 맹세문

1211고지에서 전투가 치렬해지던 1951년 9월 말

주석님께서는 자정도 훨씬 넘은 깊은 밤에 현지의 최현군단장을 전화로 찾으시여 고지에서 싸우는 전사들의 생활과 건강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이에 고무된 고지의 전사들은 조국의 고지를 목숨바쳐 끝까지 사수할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고지의 전투원들은 산정의 바위와 불탄 나무들에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글발을 새기고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면서 영웅적으로 싸웠다.

18살의 민청원 리수복은 자기의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았으며 통신병 강규호는 끊어진 통신선을 몸으로 이어 부대의 통신을 보장하였다.

인민들도 불비속을 뚫고 고지의 전투원들을 도와 포탄과 탄약,



리수복



리수복이 입었던 군복



1211고지를 지켜 싸우고있는 인민군용사들과 고지에 휘날렸던 공화국기발

식량을 날랐으며 그들과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싸웠다.

그리하여 미제의 《하기 및 추기공세》는 1951년 11월에 완전히 파탄되었다.

후방인민들의 투쟁 미제의 무차별폭격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후방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과 고통이 들춰워졌다.

이로부터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1950년 11월 20일 내각결정《戰災民救護對策에 관한 決定書》가 채택되고 전재민들에게 식량과 피복의 공급, 無償治療制를 실시하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구호대책들이 취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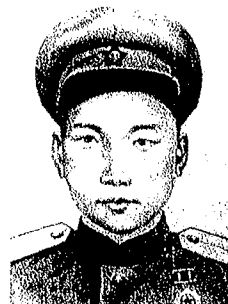
그리고 애국렬사유가족, 영예군인,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을 위하



피복을 공급받는 전재민들과 그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린 신문자료

여 국가적 및 사회 적원호사업이 적극 진행되었다.

또한 김정숙녀자 기술학원을 비롯한 遺子女學院, 초등 학원, 애육원들을 곳곳에 세우고 애



안성국



신포향



마음껏 배우는 유자녀학원 학생들

국렬사유자녀들과 戰災孤兒들을 국가부담으로 키웠다.

후방인민들은 어려운 속에서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다.

군수공장로동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적비행기의 폭격으로 전기가 끊어지면 화불을 들고 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주었다.

안성국을 비롯한 철도운수부문 수송전사들은 적비행기의 폭격을 무릅쓰고 철길과 다리, 차굴을 복구하면서 戰時輸送을 보장하였다.

신포향을 비롯한 락원기계제작소 로동계급도 파괴된 로를 살려 전시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농촌의 녀성들은 녀성보잡이운동을 발기하고 전선에 나간 남편과 오빠를 대신하여 제철에 논밭갈이를 끝냈다.



소잔등을 위장하고 밭갈이하는 녀성보잡이

*보잡이 : 소에 매운 보습을 가지고 논밭을 가는 사람이다. 원래는 남자들이 맡는 힘든 일이다.



대동군 원화리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원화리(평안남도 대동군)농민들을 비롯한 각지의 농민들은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는 구호밑에 낮에 밤을 이어 알곡생산을 다그쳤다.

남강마을녀성들을 비롯하여 전선지구의 인민들은 싸우는 고지에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파괴된 다리를 복구하여 전선수송을 보장하였다.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로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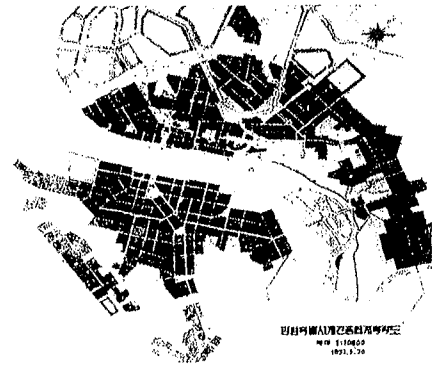
후방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전선생산과 수송이 원만히 보장됨으로써 전쟁승리는 더욱 앞당겨졌다.

치열한 싸움은 계속되었으며 아직은 그 누구도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굳게 믿으시고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하시었다. 그리고 1950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전후인민경제의 복구건

설준비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1951년 1월 초순에 폭격으로 파괴되고 불탄 평양시를 돌아보신 주석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복구건설을 준비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일본새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평양시를 일떠세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

울 준비를 잘해야겠다고 하시었다. 1월 21일에는 설계가를 최고 사령부에 부르시어 평양시復旧建設總計画面圖를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그후 작성된 설계도면을 완성해주시었다.

1951년부터 회천, 구성, 덕천을 비롯한 여러곳에 기계공업기지가 창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여러개의 전기공장과 조선소들이 건설되어 조업을 하였다.

이 시기 전선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많은 학자들과 대학생들을 전선에서 ^{초원}召回하여 과학연구사업과 공부를 계속할수 있도록 국가적조치가 취해졌다. 전후복구건설에 필요한 민족간부를 키워내기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과 여러 대학들이 계속 운영되었으며 리승기박사가 진행하던 비날론에 대한 연구사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보장되었다.

1952년 4월 평양에서는 과학자대회가 소집되었으며 12월에는 科学院이 창설되었다.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한 후 복구건설을 수행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게 되었다.



리승기

4) 미제와 남조선통치자들의 범죄행위

미제는 전쟁기간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전쟁범죄를 감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어느 한 시기에 앵겔스는 영국군대를 가장 야수적인 군대라고 불렀다. 제 2차세계대전시기에 독일파쑸군대는 그 야수성에 있어서 영국군대를 능가하였다.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그 당시 히틀러악당이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독하고 더 무서운 만행을 상상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양키들은 히틀러도 배를 훨씬 더 능가하였다.》

미제는 無差別爆撃으로 수도 평양은 물론 북조선지역의 거의 모든 도시와 농촌들을 廢墟로 만들었다.

북조선에 대한 일시적강점시기에는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미제와 리승만도당은 황해남도에서만도 12만명이상의 인민들을 체포학살하였으며 신천군에서는 전체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3만 5,000여명의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미제는 제네바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巨濟島捕虜收容所를 비롯한 모든 포로수용소들에서 인민군전쟁포로들을 세군무기와 의학실험대상으로 삼아 학살하였다. 1952년 5월 하순부터는 북조선의 전 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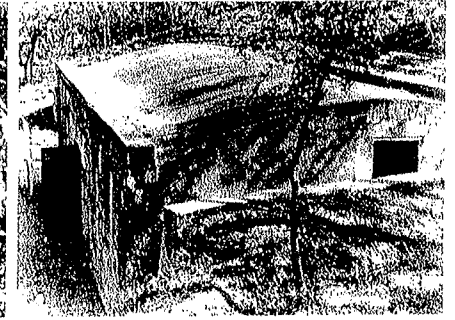
무차별폭격파괴상	
평양시 폭탄 및 나뽀탄투하	42만 8,700여개
공장, 기업소 파괴	8,700여개
지 수 지	905개
농 토 피 해	37만정보
학 교	5,000여개
병원 및 진료소	1,000여개
극장 및 영화관	670여개



파괴된 평양시의 일부



미제가 신천땅에서 감행한 야수적 학살만행



수많은 어린이들이 학살된 신천의 화약고

세균^{세균}탄을 투하하여 수많은 인민들이 병들어 죽게 하였다.

전쟁개시후 일시 위기에서 벗어난 리승만은 애국적민주력량을 모조리 제거하여 자기의 권력지반을 강화하는데 미쳐날뛰었다.

미제와 리승만은 전쟁이 터지자 곧 감옥에 갇혀있던 성시백을 비롯한 애국적인사들을 총살하였으며 한달사이에 대전, 수원, 전주를 비롯한 13개 도시에서만도 4만 2,000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리승만은 1950년 12월 《부역법》을 만들어 55만에 달하는 남조선인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체포, 구금,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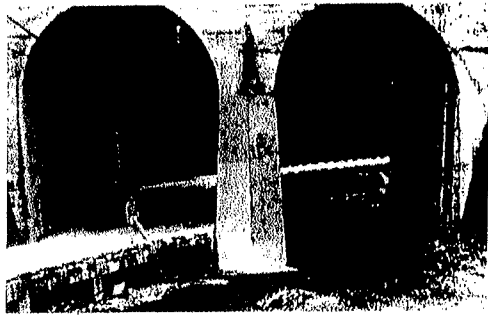


성시백



거제도수용소포로들을 탄압하는 미제침략군들

*부역법(《부역행위자특별처리법》) : 조선인민군대를 도와준 남조선인민들을 《부역자》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이다.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로근리쌍굴다리



《국민방위군》에 모집되어가는
정장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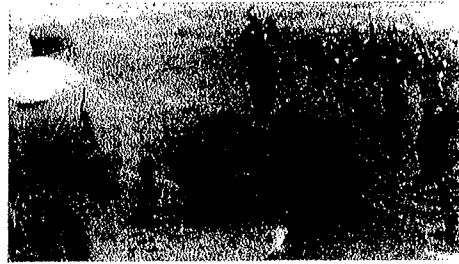
하였다. 인민유격대 《토벌》을 비롯한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살벌한 탄압속에서 《老斤里虐殺事件》, 《居昌良民虐殺事件》 등 량민 학살사건이 련이어 일어났다. 《정권》유지비용을 마련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리승만《정권》하에서 《国防防衛軍事件》을 비롯한 사기와 협잡 등 不正腐敗行為가 橫行함으로써 인민들의 분노는 더이상 억누를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리승만은 1952년 7월 4일 군대와 경찰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 《국회》를 열어 大統領直選制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강압통과시키는 《釜山政治波動》을 강행하였다. 강권으로 제 2대《대통령》자리를 강탈한 리승만은 《北進統一》을 부르짖으며 정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해나섰다.

미제와 리승만이 저지른 행위는 전쟁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였다.



부산정치파동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학살하는 미제침략군들

3 전쟁시기 재일동포들의 처지와 투쟁

조선전쟁과 일본

미제와 吉田政府는 조선전쟁도발준비를 위한 일본의 《후방안전》을 위하여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일본정부는 1949년 9월 8일 《단체등규정령》을 맨먼저 재일조선인들에게 적용하여 조련과 민청의 強制解散, 간부들의 公職追放, 수억엔 財産의 沒收를 강행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또한 10월 19일에는 조련산하 재일조선인학교 및 교육시설을 일제히 봉쇄, 接收, 개조하라는 지령을 내리었다.

재일동포들은 이러한 탄압속에서도 39개 학교를 끝끝내 지켜내어 自主學校로 운영하였으며 일본公立學校와 分校로 된 곳에서는 민족학급과 오후야간학교를 만들어 민족교육을 고수하였다.

조선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요시다정부는 미제의 조선침략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나섰다.

요시다정부는 1950년 7월 4일 내각회의를 열어 《조선에서 미군의 군사행동에 대한 행정적조치의 범위안에서 협력할 방침》이



조련중앙회관을 봉쇄한
일본경관들



조련과 민청의 강제해산 반대시위



전쟁협력에 관한 신문자료



감옥에서 석방되는 전박자들

라는것을 토의결정하였으며 모든 부문을 미제의 전쟁수행에 복종시키는 전시체제로 재빨리 개편하였다.

7월 8일 7만 5,000명의 ^{경찰에비대}警察予備隊(오늘의 自衛隊)를 창설할데 대한 미제의 지령에 따라 요시다정부는 일본의 재군비를 공공연히 다그쳤으며 인천상륙작전과 세균전을 비롯한 미제의 군사작전수행을 적극 안받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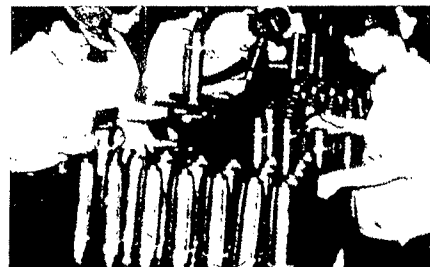
한편 모든 기관으로부터 공산당원들과 그 지지자들을 배제하라는 미군의 지령에 따라 7월 28일이후 《렛드블리》소동을 벌려 민주주의단체들을 강제해산하였으며 10월 12일에는 1만명이 넘는 ^{전박자}戰犯者들을 ^{석방}釈放하여 경찰에비대 등 여러 부문에 복귀시키였다.



경찰에비대조직에 관한 신문자료

전쟁기간 미일경제협력체제^{특수생산}에 特需生産으로 三井, 三菱, 住友, 安田 등 독점자본가들이 막대한 리윤을 얻어 되살아나는 한편 실업자, 반실업자가 1,000만명을 넘는 등 일본인민들의 생활형편은 계속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요시다정부는 1951년 9월 샌프랜시스코에서 미국과의 ^{단독講和條約}單獨講和條約과 安全保障條約이 체결된 이후 조선전쟁에 전면적



포탄을 제작공급하는 일본의 무기공장



가와사끼비행기공장

으로 가담하였으며 1952년 3월 《破壞活動防止法》과 《外国人登録法》을 공포하여 민주력량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한층 강화하였다.

요시다정부의 반동적정책으로 하여 재일동포들의 생활형편은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일본은 미제의 조선침략기지로 전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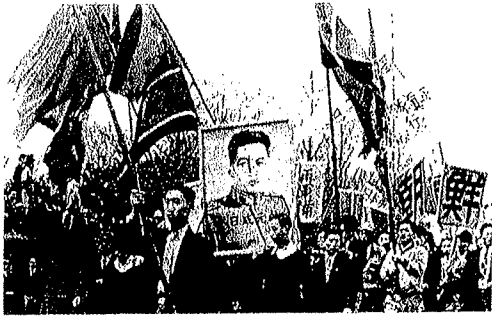
《샌프랜시스코강화조약》

1951년 9월 8일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점령을 끝장내고 일본을 《독립국》으로 한다는것을 규정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기지로 만들려는 미제의 정책에 따라 일본의 전쟁책임을 애매하게 하고 대미종속을 합법화한 침략적인 《강화조약》이었다. 같은 날에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과 1952년 2월 28일에 체결된 《미일행정협정》을 통하여 미군은 일본장기주둔과 인적, 물적자원들을 동원할수 있는 무제한한 《권리》를 합법화하였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난 후 재일동포들에 대한 미일당국의 탄압과 박해는 더욱 악화되였다.

미일당국은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재일동포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였으며 지어 군사재판에까지 내세웠다. 그리고 동포들에게 《한국》국적을 강요하였으며 애국적활동가들과 동포들을 남조선으로 《강제추방》시키려고 획책하였다.

또한 광복직후나 다름없는 무권리상태에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재일동포들이 술장사를 한다고 하여 무장경찰을 시켜 집을 수색하고 검거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반대시위

한편 미일당국은 미제의 조선전쟁을 지지하여 나선 《민단》을 적극 두둔하고 《민단》이 산하동포청년들로 이른바 《의용군》을 무어 전쟁터에 내몰려는것을 묵인조장하였다.

미일당국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1950년 6월 26일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재일조선인활동가들은 전쟁직후 조국방위위원회를 내오고 전체 동포들을 구국성전으로 부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으며 뒤이어 ^{조국방위대} 祖国防衛隊(조방대)를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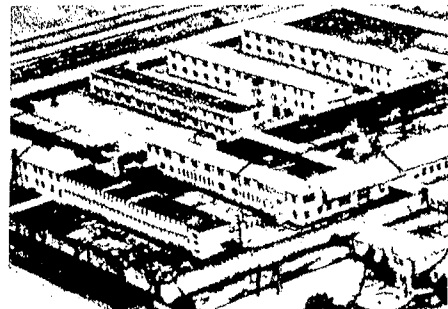
재일동포들은 요시다정부의 《강제송환》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각지에서 強制追放反対인민대회, 학생대회 등 집회들을 열고 일본주둔 미군사령부, 일본법무성을 대상으로 항의운동을 끊임없이 벌리었다.

1952년 3.1운동기념일에는 일본전국의 128개소에서 동포들이 항의집회와 시위투쟁에 나섰다.

특히 《大村朝鮮人収容所》를 비롯하여 여러 수용소들에 감금된

《오무라조선인수용소》

1950년 2월 조선인《불법입국자》의 강제송환을 목적으로 나가사끼현 오무라시에 설치한 수용소이다.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가혹하고 악한것으로 하여 재일동포들은 물론 일본인민들속에서도 항의의 목소리가 높았다.



오무라조선인수용소

동포들의 解放鬪爭을 적극 벌리는것과 함께 수용소현지에 위문단, 기자단을 파견하여 동포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수용소에서 감행되는 만행을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 널리 폭로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일본에서 군수품생산과 그 수송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서 선전활동을 적극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조선에서의 《원자무기사용반대》, 《세균무기사용반대》의 구호와 1950년의 《스톡홀름호소》, 1952년의 《베를린호소》에 따르는 平和署名運動을 벌리었다.

도쿄의 4,000여명 조선학교학생들을 비롯하여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도 전 일본적으로 200만명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전쟁의 승리와 世界反戰平和運動에 기여하였다.

재일동포들의 투쟁은 그들의 높은 애국심과 공화국의 기치따라 나아가려는 뜨거운 지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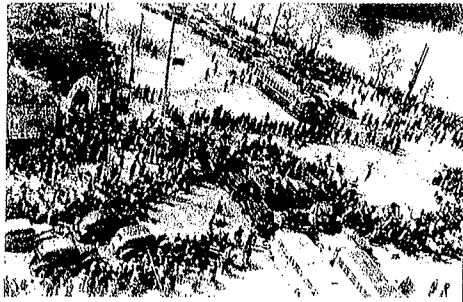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 전환 :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던 때인 1951년 1월 9일 동포들의 큰 기대속에서 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민전)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민전의 지도적자리를 차지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재일동포들을 조국을 지키는 애국애족의 길에서 배내어 일본의 《민주화》를 위한 길로 끌고갔다.

그들은 1951년 12월에 열렸던 민전 제2차전체대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死守》라는 민전강령의 조항을 삭제하고 일본

스톡홀름호소

1950년 3월 평화옹호세계대회 제3차총회에서 원자무기사용의 무조건금지, 원자무기를 사용한 정부를 전범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하고 그에 서명할것을 세계에 호소하였다. 이 호소에 따라 3~5월까지 세계 1억의 인민들이 서명하였다. 조선전쟁개시후에는 5억이상의 인민들이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시위에 참가한 군중을 탄압하는
일본경찰들



《피의 메테사건》

5.1절중앙시위를 계기로 皇居 앞광장으로 돌입한 시위대렬과 경찰대가 충돌한 사건이다.

시위에는 일본공산당원들과 노동자, 학생들, 재일동포 등 5,000여명이 참가하였다. 경찰과의 충돌로 하여 50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사건후 경찰은 백수십명의 시위참가자들을 체포하였으며 조선인부락을 수색하여 민전중앙간부와 조방대지구장들을 비롯한 40여명을 메테사건과 관련시켜 검거하였다.

의 민주력량이 너진 반미, 반요시다, 반재군비의 3反구조를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웠다.

또한 민족교육을 부인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을 일본학교에 보내도록 하였으며 우리 학교를 팔아먹는 행위까지 하였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을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極左的인 시위

나 파업에 참가시켜 일본경찰과 맞서 싸우게 하였다.

지어 일본관청과 경찰서들까지 습격하게 하였다. 1952년 5월에 동포들을 무모한 폭력투쟁으로 내몰아 《피의 메테사건》의 희생자로 만든데 이어 《吹田事件》, 《大須事件》 등 일본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세웠다.

일본당국은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정권을 쥐려고 한다고 하면서 재일동포들을 고립시켰으며 애국적활동가들을 검거투옥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의 妄動에 의하여 민전은 재일동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일본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되었다.

재일조선인운동은 로선상, 투쟁방법상 오류로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재일조선인애국적활동가들은 민전강령에서 공화국사수의 조항을 빼버린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민족적인 행위로 낙인하고 시종일관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특히 1952년 4월에 발표된 백수봉의 논문 《애국진영의 순화와 강화를 위하여—사회민주주의로선과 경향을 배격하자》에서는 애국적인가, 애국적이 아닌가 하는것은 공화국과 그 정책을 받드는가, 받들지 않는가 하는데 따라 판명된다고 하면서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공화국을 사수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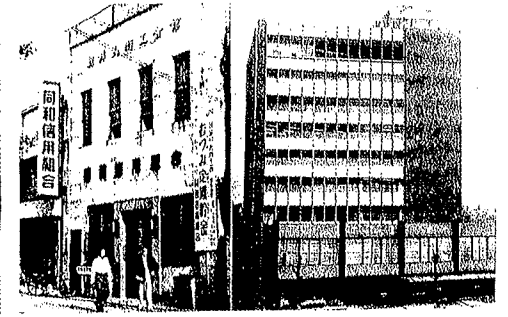
한덕수를 비롯한 애국적활동가들은 1952년 5월 20일에 폐간당하였던 《解放新聞》을 복간하고 조선통신사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한편 朝鮮問題研究所를 창립하여 공화국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동포대중속에 널리 해설침투하였으며 同和信用組合(오늘의 하나



한덕수



《해방신문》



개설당시의 동화신용조합과 새로 건설된 건물

신용조합)을 조직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이 나날이 우심해지자 애국적활동가들은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이 사태를 경에하는 김일성주석님께 보고드리고 가르치심을 받는것이라고 확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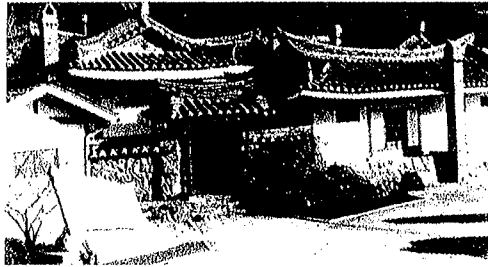
그리하여 1952년말 자기들의 대표를 조국에 파견하였다.

주석님께서서는 전쟁의 최후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매우 바쁘신 속에서도 1952년 12월 2일 건지리의 최고사령부에서 재일조선인련락원을 만나시고 엄중한 형편에 놓여있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보고받으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바로잡기 위한 주체적로선전환방침을 밝혀주시었다.

주석님께서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을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권리를 지키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환시키는것, 이것이 오늘의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구원하는 길이며 재일동포들의 념원과 지향에 맞는 참된 애국의 길이라고 하시었다.

주체적로선전환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위기에서 구원되고 옳바른 길로 전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재일조선인애국적활동가들은 주체적로선전환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출판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갔다.



건지리최고사령부

보고드리고 가르치심을 받는것이라고

4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

미제의 《신공세》기도 파탄

새로 미국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는 1952년 12월 남조선에 기여들어 《교섭보다 행동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新攻勢》준비를 다그치도록 하였다.

《신공세》의 목적은 동서해안에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을 벌려 조선인민군의 전선과 후방을 갈라놓고 인민군대를 《포위소멸》한 다음 전 조선을 강점하는것이였다.

경에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적들의 《신공세》를 짓부시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195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여시었다.

회의에서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자유주의와 종파주의를 극복하며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어 당의 전투력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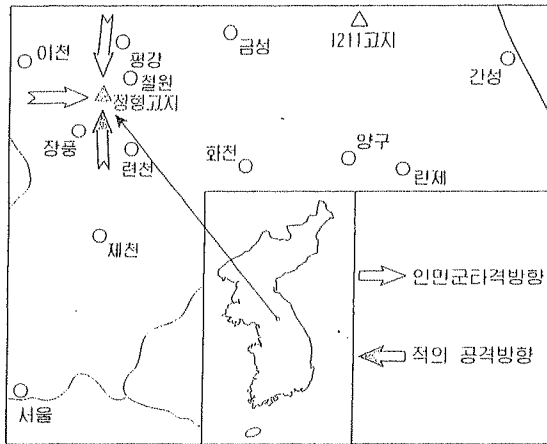
이 과업을 관철하는 과정에 박헌영, 리승엽도당의 죄행이 밝혀지게 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한층 더 강화되였다. 이것은 적들의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파탄시키고 전쟁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1953년 1월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보내어 적의 《신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결사전에로 불러일으켰다.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모두다 적을 섬멸하는 결사전으로!》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전선과 해안일대에서 갯도식방어체계를 더욱 완비하였으며 후방의 안전과 전시생산, 전선원호사업을 강화하



전선을 시찰하는 아이젠하워



정형고지전투략도

포탄을 쏟아부은 다음 1월 25일 수백대의 비행기와 포, 40대의 탱크의 掩護 밑에 한개 연대의 병력으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모범전투》라고 떠들며 술한 將星들과 《유엔군》從軍記者들, 여러 나라 公使, 領事들까지 초청하여 《참관》시키면서 벌려놓았던 정형고지에 대한 공격은 인민군용사들의 드세찬 반격에 의하여 참패당하고 말았다.

미제는 《신공세》기도를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정전협정의 체결

미제의 《신공세》기도를 분쇄한 인민군대는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1953년 5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세차례에 걸쳐 강력한 타격



승리한 고지우에서 만세를 부르는 인민군용사들

었다.

미제는 《신공세》의 서막으로 미 8군사령관 밴프리트의 지휘 밑에 철원서쪽에 있는 丁型高地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미제는 10여일 동안에 200~300m의 높이 밖에 안되는 작은 고지에 30만발의 폭탄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조인

탄을 벌리었다. 이 타격전에서 인민군부대들은 여러 지역에서 많은 적을 소멸하고 343km²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다.

날이 갈수록 패배만을 거듭하여 막다른 궁지에 빠진 미제는 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판문점에서 停戰協定에 조인하였다.

조선정전협정은 《영예로운 정전》을 떠벌이면서 군사적패배를 만회할 목적으로 들고나왔던 미제의 온갖 강도적인 요구와 부당한 주장들을 짓부셔버리고 공화국측이 제시한 기본원칙에 따라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은 정전의 공고성을 보장하는것과 동시에 조선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문제를 협의》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전 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제의 침략계획을 파탄시켰다.

또한 미제의 《강대성》의 《神話》를 깨뜨려버리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민족해방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전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은 세제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경애하는 주석님을 《위대한 군사전략가》, 《반제투쟁의 상징》으로 높이 칭송하였으며 우리 인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1953.7.28)

을 영웅적인민으로 찬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해방전쟁에서 탁월한 군사지략과 지휘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조국청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 1953년 2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7월 28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드리었다.

조선인민은 전후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전쟁으로 하여 민족의 력사에 남긴 상처를 가시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실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갔다.



승리의 광장에서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조선인민군 용사들

색

인

사건, 사실, 용어

간토지방조선인회	61	공화국창건경축대회	72
강제송환	65, 104	《공화국창건경축운동회》	73
《강제추방》	103	공화국창건 제일동포경축단	73
거제도도로수용소	98	공화국헌법초안	71
《거창량민학살사건》	99	《공화국에 직결하자!》	73
진국동맹	7	구월산유격대	87
진국사상총동원운동	23, 24, 25	9월총파업	36
진국준비위원회	7	《국가보안법》	55, 56
진국청년자치대	8	《국군》	34, 55
전지리 최고사령부	105	《국군》 제14련대	54
《경성콩크룽》	8	《국대안》	33
경제공황	74	《국민방위군사건》	100
경제개혁	19	《국방경비대》	34
경찰에비대	102	《국방경비사관학교》	34
《공군》	34	《국방사령부》	34
《공동성명서》	46	국제민주단체	88
공립학교	101	《국회프락차사건》	56
공산당재건	8	《국회의원》	50
공직추방	101	국어강습소	67
공화국기계양투쟁	72	군기헌납운동	84
공화국내각비상회의	79	군비확장	74
공화국사수의 조향	107	군사기지	75
		군사재판	103
		《군사영어학교》	34

군정	6
《극동병기공장정책》	75
기계공업기지창설	97
김구압살	56
김정숙녀자기술학원	94
김일성종합대학	20, 97
갱도전	90
갱도화	90
계획수송	59, 60
계획적후퇴	86
귀국조치	57
《과도립법의원》	40
《과도정부》	40
과학자대회	97
과학원	97

L

남강마을녀성들	96
남녀평등권법령	19
남북련석회의	44, 46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43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46
남북총선거	51, 71
남북요인회담	43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 전국위원회》	45, 46, 48
《남조선단선단정반대구국 투쟁위원회》	71

남조선로동당	37
남조선신민당	30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52
남조선인민대표자선출선거	52
녀성보잡이운동	95
농업생산반	24
농민조합련맹	15
농업증산돌격대	24

ㄷ

단독선거	42, 45, 47, 49, 50
단독선거반대집회	47
단독정부수립계획	39
단선단정반대운동	46
《단선반대구국투쟁위원회》	48
《단체등규정령》	75, 101
당중앙위원회 편지	109
당창건방침	11
《도교 4 자회담》	77
도교조선중학교	67
독립운동가	7
《독립촉성중앙협의회》	31
동서맹전	5, 41
동화신용조합	107
대민족회합	46
대전해방전투	82
대통령직선제	100
《대한민국》	50, 55, 72
대일전쟁	5
대일점령정책	74

대외정책	53
대의원	26

ㄴ

낙동강제선	85
락원기계제작소	95
려수군인폭동	54
련립내각	53
《로근리학살사건》	99
로동법령	19
로동조합총련맹	15
《륙군사관학교》	34
림시정부	9, 31
《림정법통론》	9
《렛드빠지》	102

ㄷ

만경대방문	13
만경대혁명학원	20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	13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79
《모범전투》	110
무상치료제	94
무장봉기	47
무차별폭격	98
문교부	33
문맹퇴치운동	20
《미곡수집령》	34
《미군정청》	30

미군 제24군단	30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	82
미 제24보병사단	82, 83
미일경제협력체제	102
민전 제 2 차전체대회	105
민정	6
민족교육	101
민족보위국	28
민족자주련맹	43
《민족청년단》	35, 36
민족학급	101
민주개혁	17, 21, 23
민주녀성동맹	15
민주력량	4
민주선거	26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30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	15
민주청년동맹	15
《민주의원》	32
《민중신문》	61

ㄷ

반공적집단	87
반제민족해방투쟁	4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10
《반탁운동》	38, 39
보통강개수공사	21, 23
보안간부훈련소	28
보안대	27

북구건설준비위원회	97
북구공사돌격대	83
봉쇄정책	74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10
《부산정치파동》	100
부정부패행위	100
《부역법》	99
《북벌》계획	76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12
북조선로동당	25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16, 17
북조선민주주의인민통일전선	25, 43
북조선 행정10국	16
북조선인민회의	26
《북진통일》	100
비날론	97
《비상계엄령》	49
《비상사태》	69
비행기사냥군조	91
비행기헌납운동	84
《비일본인에게 보통세부담을 적용할데 대한 건》	64
빈고농	19
백전로장	13
《베를린호소》	105
人	
4.3인민봉기	47
4.24교육투쟁	70
4월남북련석회의	44

3 국외상회의	38
3 반구호	106
3 성조정위원회	5
3.7제 투쟁	18
38도선무력침습사건	76
《38도선분할안》	6
3.1운동기념행사	18
서대문형무소	7
《서북청년단》	35, 36
서울대학교	34
《서울중앙》	8
서울해방전투	80
석방투쟁	105
선거인등록사업	49
성균관대학	83
소년근위대	87
숙군소동	76
《스톡홀름호소》	105
《스이다사건》	106
습격조	91
10월인민항쟁	37
식량위기	35
《신공세》	109
신천군	98
《신탁통치》	38
《신한공사》	33
《신의주학생사건》	14
새로운 전쟁도발계획	76
새 민주조선건설로선	10
생산복구대	83

생활권옹호투쟁위원회	65
세군무기	98
세군전	102
세군탄	99
세계반전평화운동	105
세계제패	4, 74
ㄷ	
자립적민족경제	26
자주독립국가공민	73
자주학교	68, 101
자치대	64
자유주의	109
장진호반전투	88
저격수조	91
《적국인》	58
적산불하법령	32
《적산에 관한 건》	32
전국농민조합총련맹	29
전국청년학생단체총동맹	30
전범자석방	102
전선사령부	82
전선출동탄원긴급회의	83
전선탄원운동	84
전선원호사업	84
전시수송	95, 96
《전제민주호대책에 관한 결정서》	94
전쟁범죄	98
전쟁 4 계단의 전략적방침	90

전쟁 3 계단의 전략적방침	88
전쟁 2 계단의 전략적방침	86
전쟁 1 계단의 전략적방침	80
전후복구건설	96
전인민적인 구국투쟁	37
정규교육	67
정규무력	27
《정당등록법》	35
정전협정	111
정주철도기관구 로동자	24
정치회의	111
《정판사위조지폐사건》	35
정형고지	110
《정읍발인》	39
조국광복작전	5
조국방위대	104
조국방위위원회	104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56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	43
조련과 민청의 강제해산	101
조련 제14차 중앙위원회	71
조련 제17차 중앙위원회	73
조련 제2차 임시대회	62
조련의 선언과 강령, 규약, 활동방침	61
조선로동당	5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회의	7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9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 차전원회의	109
조선로동조합전국평의회	29
조선문제연구소	107
조선문화단체총동맹	30
조선민주당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2, 53,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경축준비위원회	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호방위》	1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	1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	112
조선부녀총동맹	30
조선신민당	15
《조선전쟁개입을 위한 계획》	76
조선최고인민회의	51
조선최고인민회의	
제 1 차회의	52
조선통신사	107
조선해안경비대	34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	68
조선인거국자구호회	61
조선인민군	28
《조선인민공화국》	8, 31
조선인민당	30
조선인민혁명군	5, 6, 7, 27
《조선인불법행위에 관한 건》	64
《조선인설립학교의 취급에	

대하여》	68
조선인, 중국인강제련행	
관계자료	57
조선인 탄압반대투쟁위원회	65
《조선인의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것》	70
중파사대주의자	105, 106, 108
주체적로선전환방침	108
주체전법	91
중국 제 3 차 국내혁명전쟁	53
중등교육체제	67
중앙보안간부학교	28
중앙주권기관	15
중요산업국유화법령	19
증산경쟁운동	24
지리산유격대	55, 87
지방인민위원회	8, 15, 31, 83
진보적민주주의	10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63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	63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	63
재일본조선거류민단	63, 72
재일조선인련락원	108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	61
재일조선인생활옹호인민대회	65
재일조선인학교	6 5
재일조선통일민주주의전선	105
《재일조선인에게 경고함》	69
재배바협정	98
《제 3 국인》	64

《제주도경비사령부》	48
제주도 4.3인민봉기	47, 54
제 2 대 《대통령》	100
제 2 차세계대전	4, 5
좌우합작운동	40
좌우합작위원회	40
大	
천도교청우당	15
1211고지	92
청년근위대	87
청천강부근전투	88
초등학교	67
《총공세》	85
《총독부》	30, 31
친일파	31, 61
친미파	31
최고사령부	9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5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78
극	
《크리스마스총공세》	88
근	
《토성랑》	21
토지개혁	17, 19, 33
토지개혁법령	18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18
토지정원운동	18

통일정부수립촉성대운동회	71
통일정부수립투쟁월간	71
트루먼주의	41
《특별경비사령부》	49
11	
《파괴활동방지법》	103
판문점	111
평화서명운동	105
《평화적조국통일방책추진에	
관한 호소문》	78
《평화적조국통일추진에 관하여》	78
평양시군중대회	12, 13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	97
평양학원	28
평양해방	89
《피의 메메사건》	106
ㅎ	
《하기 및 후기공세》	92, 94
학교건설	67
《학교폐쇄령》	68, 69
《한국》국적	103
《한국민주당》	9, 31, 33, 40
한나산	48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76
《항토보위단》	49
《헌법개정안》	100
헌법초안토의사업	71
후견제	39

《후방안전》	101
《해방신문》	107
해외교포조직	62

ㄷ

땅크사냥군조	91
땅크헌납운동	84

ㄴ

쏘련군대철수요청서	53
쏘미공동위원회	39, 41
쏘미량군	6, 46
《샌프랜시스코강화조약》	102, 103

ㅇ

《안전보장조약》	102
압록강호안공사	23
열병식	28
5.30선거	50, 76
《오스사건》	106
5.10단독선거	50
5.10단선을 반대하는 투쟁	47
오후야간학교	101
요시 다정부	101, 102, 103
《우끼시 마마루》폭파사건	58
유격투쟁	55
유자녀학원	95
유엔	41
《유엔군》	81
《유엔군》종군기자	110

《유엔 임시조선위원단》	41, 42
유엔소총회	42
유엔헌장	41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	81
2중선거	51
2.7구국투쟁	42
인민경제계획	27
인민군전쟁포로	98
인민무장대	7
《인민중앙정부수립촉성인민대회》	71
인친상륙작전	85
《일반명령 제 1 호》	6
일본공산당	106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6
일본법무성	104
《일본점령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정령》	58
일시적강점시기	98
애국미헌납운동	24
애국적조직	62
《애국진영의 순화와 강화를 위하 여 - 사회민주주의로선과 경향 을 배격하자》	110
《외국인등록령》	65
《외국인등록법》	103
《외국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정령》	66
의용군	84, 104
원화리농민들	96
월미도방어진투	85

인 물

ㄱ

강 전	27, 53
강규호	93
공재화	84
김경석	11
김 구	9, 31, 43, 56
김규식	31, 40, 44
김달삼	48
김성수	9, 31
김재원	24
김 책	11, 82
김태일	69
김회일	24
김용범	8, 12
김 일	11
김월송	44

ㄴ

널레스	77
-----	----

ㄷ

려운형	7, 30, 40
로버트	55
류경수	27, 80
리극로	43, 44
리제산	20
리덕구	48
리대훈	85
리수복	93

ㄹ

백아더	6, 77, 85
-----	-----------

ㅁ

박락권	53
박정희	34
박정애	12
박헌영	8, 37, 109
박원진	91
브랫들리	77
백남운	10, 30
백수봉	107
벤프리트	110

ㅂ

성시백	99
송진우	9, 31
신기철	91
신포향	95

ㅅ

장개석	4
장도영	34
정일권	34
조명옥	31
존슨	77

ㅈ

치스차코브	6
채병덕	34

최광	53
최동오	44
최현	86
최일천	10
최원일	10

ㅊ

트루먼	41, 77
-----	--------

ㅋ

켄	83
---	----

ㅎ

하지	30
한덕수	107
허 현	8, 10, 40
현준혁	8
홍명희	10, 43

ㅇ

아놀드	30, 31
아이젠하워	109
안성국	95
안재홍	7, 43
안영애	84
오기섭	12
요시다	75, 101

현대조선력사 고급학교 제 1 학년

주제93(2004)년 3월 25일 조판발행

편찬자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발행자 학우서방 〒174-0051 東京都板橋区小豆沢4-24-16
電話 03-5392-1181 FAX 03-5392-1189
